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The Sixth Trilateral Summit Mee
epublic of Korea, Japan and the People's
of

November 1, 2015 Seoul, Korea

Weekly 공감
No.329
korea.kr/gonggam
2015.11.09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진정성 있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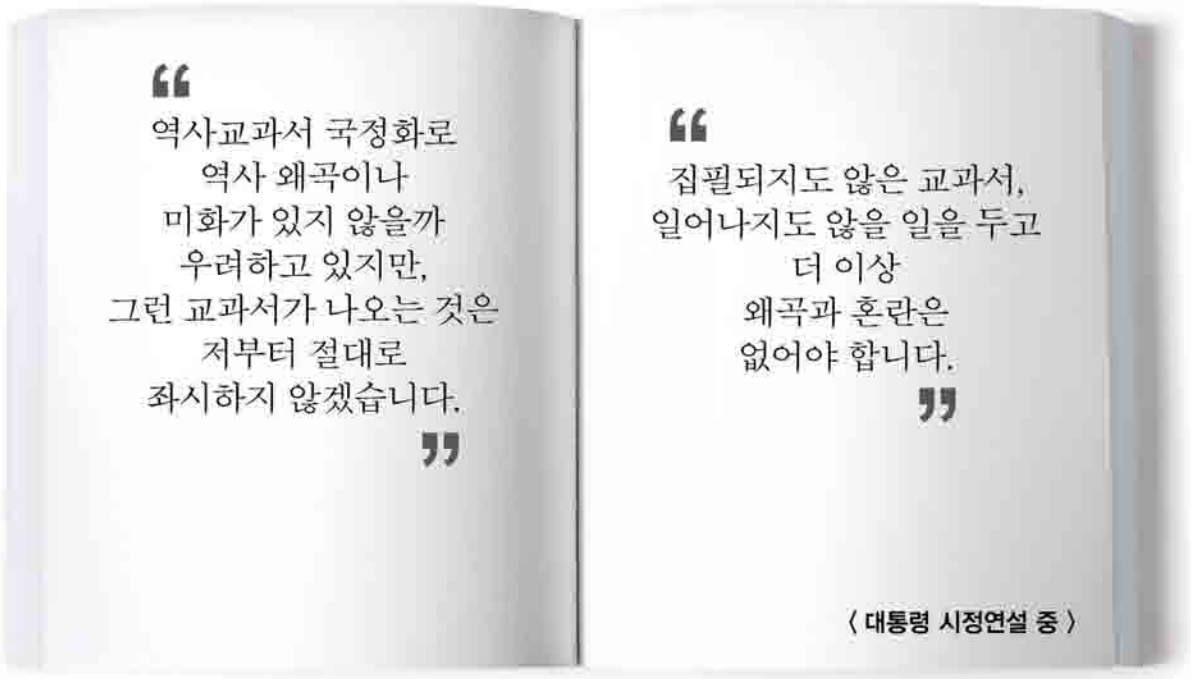
기획특집 꿈과 끼 키우는 자유학기제

중점기획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역사 교육 정상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확고한 국가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역사교육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

자유학기제가 진짜 좋은 이유



한윤경
경기 안산시 신길중 학부모

경기 안산시 신길중학교는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큰아이가 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주변 학부모들에게 자유학기제에 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위주의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실현 가능할까', 과연 한 학기 동안의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막연한 걱정과 불안감 속에서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에 자원했다. 학부모 지원단 활동을 해보니 나 역시 자유학기제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단순히 진로체험 활동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연수와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의 일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신길중은 오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을 수업한다. 오후에는 요일별로 다른데, 월·화요일엔 예체능, 수요일엔 교과 선택수업, 목요일엔 진로적성 선택수업, 금요일엔 담임선생님과의 진로수업이 있다. 목요일 진로적성 선택수업 중 '녹색학교 만들기 반'은 학부모 지원단이 지도자 양성과정을 거쳐 직접 아이들 교육을 맡았다. 학부모 지원단은 11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안산시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협력해 '신길 그린키움'이라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받았다. 전문가들의 이론과 사례를 통한 교육을 받았고 교안(敎案)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속 모르는 이웃 엄마들은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더니 엄마가 학교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모를 것이다.

드디어 녹색학교 만들기 반 아이들 24명을 만났다. 빠짐없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일은 쉽지 않았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도 대부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수업에 몰두했다. 밖에서 볼 때는 다소 산만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내가 수업을 진행해보니 아이들 모습이 밝고 예뻤다. 쉬는 시간 칠판에 '선생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 퀴즈 정답을 맞히고 받은 초콜릿을 건네주는 아이, 운동장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달려와 인사하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웠다.

진로체험은 아이들이 작은 것이라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부모 지원단은 사업장 발굴과 인솔에 참여했다. 진로체험 사업장 발굴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담당 선생님들이 늦은 밤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러는 사이 내 아이도 어른들의 노력이 느껴졌는지 전보다 활발해지고 발표력도 많이 좋아졌다.

한편으로는 학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약간의 성적 차이가 생겼지만 변화에 곧 적응했다. 아이들이 공부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또한 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는 알 수 없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많은 경험과 고민을 거쳐 꿈과 희망을 품고 각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G

Weekly 공감

CONTENTS

2015. 11. 09 No.329 통권 430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한·일·중 3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청와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했다. 3국 정상들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 번영 구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체제가 완전히 복원됨에 따라 새로운 협력과 발전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청와대)

01 **이 주의 공감**

04 **독자마당**

06 **공감 사진관**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올바른 역사교과서

08 **객관적 사실·헌법 가치 충실한 교과서 개발**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정화 최종 확정

10 **"편향된 역사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미안**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육 진정성 믿어달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황교안 총리 대국민 담화

13 **"수준 높은 집필진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 만들 것"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개발 방향

14 **청년희망재단 현판식… 본격 활동 돌입**
'청년희망아카데미' 설치 맞춤형 인재 양성

15 **청년희망사업 Q&A**
'청년신문고' 통해 취업 애로 해소



중점기획 한·일·중 3국 정상회의

16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협력체제 복원 큰 의미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

18 **한·중 관계 내실화 가속 손잡았다**
박 대통령, 리커창 총리와 양자회담…
한·중 FTA 연내 발효 추진 등 교역 확대

20 **위안부 조기 타결 협의 가속화 합의**
박 대통령–아베 총리 첫 회담…
다자 차원서 북핵 문제 대응 협력 지속키로

22 **외신 보도**
대화 재개 그 자체로 성공
한국이 주도적 리더십 발휘

24 **전문가 기고**
동북아 외교 '포지티브' 게임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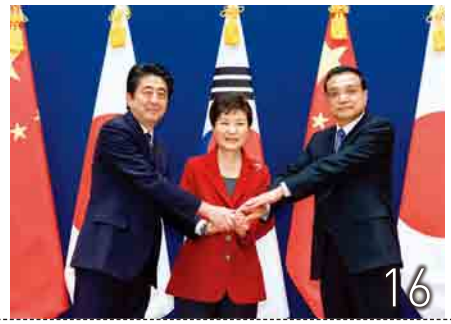
26 **한·프랑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박 대통령,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창의·혁신으로 세계 경제 재도약 견인"



특별기획 정상외교 후속 지원 및 간담회

28 **정상외교 순방 동행업체 후속 지원 강화**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 중심으로
정보 공유와 성과 관리

30 **"기대 이상 성과에 매우 고무적"**
"미흡한 점 보완 더 큰 성과 도울 것"
미국 순방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사후 간담회







핵심개혁

32 **공공개혁**
공공·준정부기관 91.7% 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창출·고용환경 개선에 탄력

기획특집 자유학기제, 꿈과 끼 살리는 행복 교육

36 **'자유학기제'라 쓰고 '행복교육'이라 읽는다**

38 자유학기제, 궁금합니다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편성
어느 학년·학기에 할지는 의견 수렴

40 자유학기제 현장 | 대전 남선중
방송 뉴스 제작 체험
"우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

42 자유학기제 현장 | 경남 창원 창덕중
"꿈을 키우고 펼치는 기회
두 시간이 너무 짧아요!"

44 자유학기제 현장 | 전북 순창 순창북중
"엎드려 잠만 자던 아이들
눈빛이 초롱초롱 달라졌어요"

46 자유학기제 현장 | 경기 안산 신길중
학생·학부모·교사 합심
미래로 通하는 시간을 만들다

48 해외 사례
제도는 조금씩 달라도 청소년 꿈 키우기에는 한마음

50 기고
아이들은 변해 있었다, 당당하게

정책 & 이슈

52 **미리 하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 세우기**
공제액·세액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신고서는 파일로 제출

54 **유럽에 심은 한식의 매력**
밀라노엑스포 폐막… 한국관 230만 관람객 동원

56 **다문화가정에는 향수를**
내국인에겐 아세안 문화체험을
산림청, 경기 양주시에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개장

58 **"운동선수 도핑 근절, 한국이 더 큰 역할 펼칠 것"**
김종 문체부 제2차관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으로 선출

59 **유치원 입학 원아 모집 과열 완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0 **야생화와 창조경제 / 먹거리 산업**
먹는 '꽃', 산업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관상용 야생화가 미래 먹거리로 탈바꿈

문화 & 교양

62 생활과학 이야기
'2년 차 징크스'는 '평균 회귀' 흔한 현상

63 **書로공감**
우리가 묻어버린 것들

64 소통과 공감
늦가을과 가수 김정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 11. 0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김종덕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044-203-3014)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프린피아
구독문의 02-2625-3294 jjsmall@korea.kr
구독 주소변경 신청 수신자부담 전화 080-851-0183

알림 게시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진 | 리디북스 | 블로그 |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한·중 FTA 계기 UCC 영상·사진 공모 이벤트

공모 주제 한국의 제품, 콘텐츠, 서비스 등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성공할 것 같은 아이템을 정해 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제작
응모 자격 일반 국민(팀은 4인 이내로 구성)
접수 기간 11월 22일까지
응모 방법 한·중 FTA 계기 UCC 영상·사진 공모 이벤트 누리집(www.fta-event.co.kr) 통해 제출
시상 내용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상당의 상품), 우수상 6명(각 30만 원 상당의 상품), 참여상 200명(각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문 의 담당자 이메일(infohj1@imabc.kr)로 문의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2015 개인정보 보호 개선 과제 발굴 공모전

공모 주제 •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도 개선 과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수 사례
응모 자격 • 일반 부문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공 부문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접수 기간 11월 30일까지
응모 방법 담당자 이메일(picontest@kisa.or.kr)로 제출
시상 내용 대상 1편(200만 원), 최우수상 2편(각 100만 원), 우수상 4편(각 70만 원), 장려상 6편(각 30만 원), 입선 20편(각 10만 원)
문 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전 담당자(02-2100-2425)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모전 담당(02-405-4710)
주 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23일 오전까지 이메일(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삼세판 퀴즈 Quiz

01 아일랜드 ○○○○○는 중등교육과정 중에서 주니어 과정(중3)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2)에 들어가기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된다.

02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11월 3일 '편리한 ○○○○'에 관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03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 중국 국무원 총리와 10월 31일 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FTA 연내 발효 추진,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327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한복 **02** 이산가족 **03** 과학

당첨자
김인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박석근(경기 김포시 김포대 926)
송주현(전북 익산시 약촌로 202)
전순애(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846)
조건희(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19)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329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23일 오전까지 이메일(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0119)

공감 카툰



편집실에서

유치원생 때 꿈은 수녀님이었습니다. 성당 유치원을 다녔던 터라 원장 수녀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적이 뒤처져 늘 교실 안팎에서 구박을 받았는데, 합창반 선생님이 "넌 목소리가 좋아 성악가가 되면 좋겠다"며 공개적으로 칭찬해주신 덕에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TV에 나오는 가수, 배우도 생각해봤지만 숫기 없는 성격을 스스로 간파하곤 꿈 없이 멍하니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가르치는 친구 아버지를 만났고, 그때 환상이 생겨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의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강경란 분쟁 전문 PD의 특강을 듣곤 기자가 되자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삼수 끝에 꿈을 이룬 저는 생활인이 됐지만, 그때 마음을 기억하며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듯 직간접 체험을 하며 꿈을 향해 하루하루 살고 계시겠지요. 내일의 주인공들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일찌감치 더 다양한 직간접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후배들이 겁먹지 않고 인생이란 배낭여행을 만끽하며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11월 4일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25개국 한인 리더와 서울 서초구청 어머니회 회원 등이 서초구청 뒷마당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한인 리더들이 김장 담그는 법을 배워 김치 홍보대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정성 들여 담근 김치는 어려운 이웃 450여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 지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정화 최종 확정

객관적 사실·헌법 가치 충실한 교과서 개발
(史實)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 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월 3일 오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고시했으며, 이로써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바뀌게 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담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황 총리는 대형 TV 스크린과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현행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편향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학생들 학습 부담 경감 역사 왜곡 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황 총리는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일각에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정된 구분 고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발행체제로 구분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765책을 국정, 검정, 인정 도서로 구분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했고,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으로 유지했다.

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평가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있는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는 엄격한 심사와 질 관리를 위해 현행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으며,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 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72책을 인정 도서로 구분했다.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고시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게 하겠다"며 "특히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후 상당 기간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했고, 11월 2일 자정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 공표할 예정이다.

시대별 명망 높은 원로 초빙
중진 및 현장 교사 선정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 마련 및 교과서 개발 일정 등을 밝혔다.

개발되는 도서는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이상 교사용 지도서 포함),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5책으로,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집필·검토·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학생의 흥미 유발 및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라는 개발 방향에 따라 만들어진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시대별 대표 집필자로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하고, 공모와 초빙을 통해 학계 중진 및 현장 교사를 선정해 집필진을 최종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원고본이 완성되면 국사편찬위원회 내부 시대별 전공자 20명 안팎으로 2개 팀(중학교, 고등학교)을 구성해 철저한 기관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동북아역사재단 등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해 교과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 등 전문기관의 책임 감수도 거쳐 교과서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과서 개발 일정(안)은 11월까지 편찬 기준과 집필 세목을 정하고, 내년 11월까지 집필 및 심의·검토를 마친 후 12월엔 감수 및 현장 검수를 거쳐 2017년 1~2월 인쇄·배포할 예정이다. 일선 중·고등학교에는 같은 해 3월 보급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G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황교안 총리 대국민 담화

“편향된 역사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미안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육 진정성 믿어달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대형 TV 스크린과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 전문.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화면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6·25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유엔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 수립’도 아닌 ‘국가 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 도발 외면

46명의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천안함 폭침	아웅산테러	1.21 청와대 습격
금성출판사	○(본문)	×	○(본문)
동아출판	○(본문)	○(연표에만 표시)	×
미래엔	×	○(연표에만 표시)	○(도움글)
비상교육	○(본문)	○(연표에만 표시)	○(도움글)
지학사	○(본문)	×	○(본문)
천재교육	×	×	○(본문)
교학사	○(본문)	○(본문)	○(본문)
리베르스쿨	×	○(연표에만 표시)	○(본문)
계(수록/총)	5종/8종	5종/8종	7종/8종

※ 미래엔 교과서가 서술이 가장 높음

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정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편향적 서술 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필진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 사례 등입니다.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 국민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 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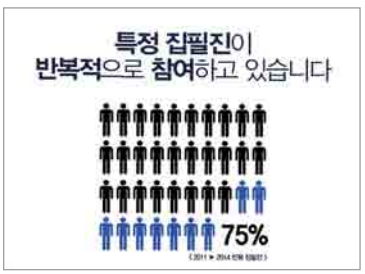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 집필진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배제된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99.9% vs 0.1%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 소속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전국에 약 2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민 여러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입니다.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십시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G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개발 방향

“수준 높은 집필진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 만들 것”

뉴시스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배석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확정고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작업이 본격화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 마련 및 교과서 개발 일정 등을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도서는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이상 교사용 지도서 포함),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5책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개발 방향은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집필·검토·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학생의 흥미 유발 및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다.

집필진은 학계 원로와 중진, 현장 교사를 망라해 수준 높게 구성된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로는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하고, 공모(11월 4~9일)와 초빙을 통해 학계 중진 및 현장 교사를 선정해 집필진을 최종적으로 꾸릴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선 대표 집필자 중 확정된 2명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이름이 공개됐다.

상고사 분야를 맡게 될 최 명예교수는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졸업 후 1972년 전남대 전임강사로 시작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은 고고학 전공 원로 학자다. 한국상고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1988년부터 2011년까지 23년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했다.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로 선정된 신 명예교수는 서울대 역사교육과 출신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재위원, 한국고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2004년 이화여대에서 정년퇴임한 후엔 서울시 역사자문관,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신 명예교수는 역사교과서 대표집필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역사교과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우리 국사가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 교과서 편찬의 방향과 편찬상의 유의점이 명확하고 균형 있게 제시되는 편찬 기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말에 기준이 확정되면 이에 대해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정배 위원장은 “수준 높은 집필진, 서술 방향과 원칙이 명확한 집필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청년희망아카데미' 설치 맞춤형 인재 양성

청년희망재단 현판식… 본격 활동 돌입

박해윤 기자



청년희망재단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6층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황철주 재단 이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두 번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여섯 번째) 등과 함께 기념떡을 자르는 참석자들.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청년희망재단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6층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희망재단은 국민적 관심 속에 조성 중인 청년희망펀드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엔 황철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을 비롯한 임원진과 펀드 기부자, 멘토단, 수탁자 측 대표가 참석했다.

임원진에서는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으며, 펀드 기부자 대표로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가수 효린·김태우, 멘토단 대표로는 송신근 기능한국인협회장과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탁자 대표로는 이광구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인사들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 현판 제막, 기념떡 커팅 순으로 이뤄졌다.

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신념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재단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선 황 이사장의 재단 비전 소개, 장의성 재단 사무국장(한성대 교수)의 재단 사업 방향 설명, 멘토단의 소감 발언이 있었고, 특강으로 임원진 중 한 명인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가 '희망의 원리'라는 주제로 융·복합 스토리텔링 강연을 했다.

재단은 앞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다양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 정부 정책, 취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원스톱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진로·문화·정보기술(IT) 등 분야별 멘토단을 구성해 멘토링 및 특강, 현장 실습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능력 개발사업도 펼치며, 청년 해외 수출 전문가(일명 '청년글로벌보부상') 육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G

| 청년희망사업 Q&A |

일자리 원스톱 정보센터 구축, 해외 진출 지원

'청년신문고' 통해 취업 애로 해소

청년희망재단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재단은 10월 30일 누리집(youthhopefoundation.kr, yhf.kr)을 통해 특강 신청 및 멘토링 서비스 접수 등을 개시했다. 재단 사업의 기본 방향(안)과 내용, 준비 현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재단 사업의 추진 방향은.

A 기본 방향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다. 재단 내에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해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원하는 기업 등으로 연계한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고급 융합 교육훈련과정 희망자를 접수하며, 훈련과정 참여에 애로가 있는 경우 '(가칭)청년신문고' 등을 통해 청년 취업 애로요인도 해소한다.

Q 청년 일자리 정보는 어떻게 제공하나.

A 하나의 원스톱(One-Stop) 누리집에서 일자리, 정부 정책, 취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내년 안에 사업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일자리 원스톱 정보센터를 구축해 온라인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10월 30일 블로그 형태의 누리집 개통을 통해 청년 고용과 관련한 취업 지원기관 누리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 1분기 내로 포털 형식의 재단 누리집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가 구축 중인 청년고용포털과도 연계해 취업 지원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원스톱 버추얼센터(Virtual Center) 역할을 수행케 한다.

Q 멘토링 및 특강 운영 방식은.

A 진로, 융합콘텐츠, 디자인, 정보기술(IT) 컴퓨터 정보, 해외 진출, 숙련 기술인, 금융 등 각 분야별 멘토단을 구성해 멘토링과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다. 향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분류에 따라 그룹화해 청년층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멘토단의 재능기부 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강형, 상담형, 온라인 커뮤니티형, 누리소통망(SNS)형 등 유형별로 그룹화해 11월 3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멘토 특강은 청년친화적 멘토들을 우선 추진하고, 특히 문화창조 강좌는 스토리텔링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재단 누리집

Q 일자리·창업능력 개발사업이 궁금하다.

A 12월 중순부터 시범 사업으로 모바일 게임(30명), 웹드라마(30명) 등 2개 분야에 대해 인문·사회·예체능 전공 대학생(졸업자) 중 문화콘텐츠산업 진출 희망자를 선발해 6~9개월간 교육시켜 미래 성장 분야의 인재로 육성해 취업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 지식에 어학교육을 접목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프리미엄 관광 가이드로 육성한다.

Q '청년글로벌보부상'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나.

A 12월 중 '청년희망종합상사 1차 청년글로벌보부상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 해외 진출에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을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해당국의 언어와 상품 품목별 세일즈 기술 등 현지 수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 후 세일즈 전문가로 육성·파견해 우리 중소기업의 창조제품 수출을 확대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G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협력체제 복원 큰 의미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 의미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 개최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11월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 등 5대 협력 분야를 담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전후로 열린 한·중 양자회담(10월 31일), 한·일 정상회담(11월 2일) 등 삼각 릴레이 회담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던 3국 간 협력체제의 복원 계기를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한·일·중 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해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 정세에도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돼온 것을 평가하면서, 지난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 만에 열린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와 리 총리는 의장국인 한국의 박 대통령이 그간 3국 협력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정상은 또한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나가고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안정과 공동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3국 간의 양자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의 심화가 결국 3국 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8월 한반도 긴장 상태가 남북한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한 점을 평가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하기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로 향후 3국 간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경제 통합 가속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교역·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의 협력이 추진되고 액화천연가스(LNG) 세계 수입 1~3위국으로서 중·장기적 협력 등 협력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공동 대처,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공조체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 1:1 비즈니스 상담회

한편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1 : 1 비즈니스 상담회, 인재 채용 상담회 등이 함께 개최돼 3국의 민간기업 간 비즈니스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11월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3국의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 축사에서 한·일·중 FTA 협상의 가속화 및 3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의 창조경제 등 각국의 신(新)성장산업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 의존, 정치안보상 갈등 병존 현상 극복 ▶역사 직시, 미래 지향 정신에 의거해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3국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 ▶일·중 양측,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높이 평가하고 환영,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동의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 증진으로 3국 간 협력 지속 강화 등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 가속화 노력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개발 협력) 채택 환영 ▶3국 환경장관회의(TEMM) 통한 3국 간 환경 협력 강화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청소년 교류협력 강화 ▶교육장관회의 신설 ▶스포츠(올림픽 개최 관련) 협력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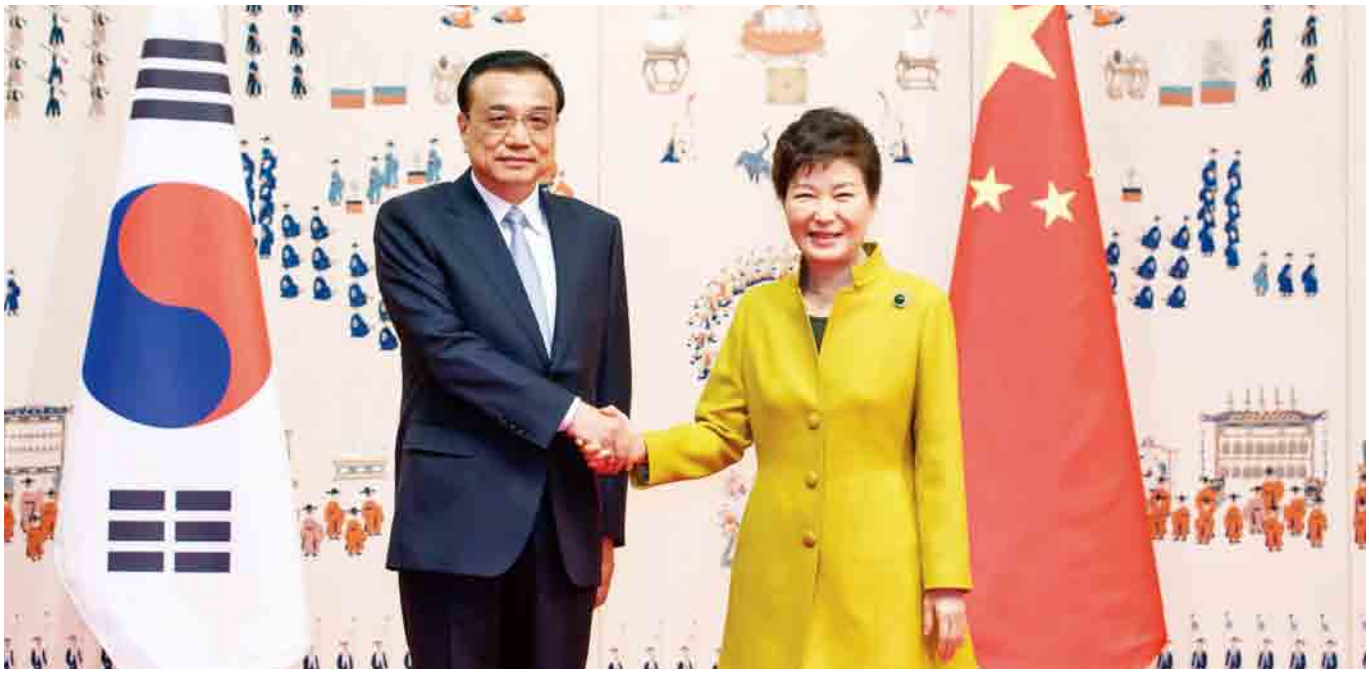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3국의 공동 대외 메시지 발신 ▶일·중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 주목 ▶동아시아 경제 통합(RCEP 체결 추진 등)을 위한 공동 노력 ▶사이버 안보 및 대테러 분야 협력 ▶여타 지역협력체(G20, APEC, EAS 등)에서의 협력 강화 등

이번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3국 전자상거래협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3국 경제단체 간 교역·투자 활성화 MOU' 등 2건의 MOU가 체결되어 민간의 교역·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 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1 : 1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려 우리의 중소·중견기업 107개 사(社)와 일본·중국의 76개 사(일본 29개, 중국 47개)가 참석해 총 28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재 채용 상담회에는 일본·중국 기업 20개 사(일본 16개, 중국 4개)가 참여한 가운데 국내 취업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면담이 진행돼 청년 15명의 연내 취업이 내정됐으며,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향후 취업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G

한·중 관계 내실화 가속 손잡았다

박 대통령, 리커창 총리와 양자회담… 한·중 FTA 연내 발효 추진 등 교역 확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0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만 되면 김치는 연내에도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쌀은 2016년 1월부터, 삼계탕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수출이 개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10월 31일 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중 FTA 연내 발효 추진,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기후변화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리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중국 총리로서는 5년 만이다. 한·중 두 나라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 확대, 산업혁신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추진, 금융 협력 강화 등 분야에서 총 17건의 양해각서(MOU : 교역 확대 6건, 혁신 분야 4건, 제3국 공동 진출 3건, 외교·환경·인문 등 4건)를 체결하고 1건의 합의문(금융 협력)을 마련했다.

경제·통상 : 한·중 FTA 연내 발효 등 양국 교역 확대

박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 확대와 관련해 "한·중 FTA 연내 비준과 발효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노력 중"이라며 중국의 조속한 비준 마무리를 당부했다. 또한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 노력을 해가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한·중 FTA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FTA가 한·중·일 FTA, RCEP 등 동북아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회담이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된 가운데 리 총리가 "지난 9월 2일 (베이징에서 가졌던) 정상회담 직후 김치와 삼계탕 수입 문제를 관계기관에 지시해 수입을 관철시켰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쌀, 삼계탕, 김치처럼 맛있는 농식품이 중국인 식탁에

늦게 오르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원망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앞으로 삼계탕과 김치 수입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추진해 가능했다는 점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언급해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는 지난해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관련 위생 기준 개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그간 세계무역기구(WTO)와 중국 내부에서 '김치 위생 기준 개정안(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FTA 발효만 남은 상황이다.

쌀은 한국산 쌀의 수출입 검역요건 초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양국 국내 고시 절차만 남은 상황. 11월 중 양국 국내 고시 후 12월 중 수출작업장 등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삼계탕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중국 측 실사 후 내년 상반기 중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혁신 : 제조업 혁신, 산업단지 및 로봇 등 협력 강화

혁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리 총리가 먼저 "국제 경제의 변화가 급속한 추세를 반영해 양국 경제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창신경제'와 우리의 '창조경제'를 연결해 중국 중서부 지역에 한·중 창신단지를 설치해 양국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여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제조 2025'와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의 연계 협력 ▶중국의 자금과 제조 능력, 한국의 첨단기술과 생산 능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개척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를 제안하면서, 이러한 연계를 통해 교통·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고 특히 로봇 관련 제조업 기반이 강한 양국의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 민관 차원의 다양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했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제3국 시장 협력 진출에 관한 MOU' 등 리 총리의 제안이 반영되어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MOU들이 실질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 협력 : 금융·채권시장 연계해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리 총리는 양국의 금융·채권시장을 연결하면 궁극적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 발행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한도 확대(800억 위안→1200억 위안) 및 산둥성과의 금융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와 자본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파트너로 한국이 함께하길 희망한다"면서, 서울의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중국에서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도록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사상 최초로 위안화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고, 금융 협력과 관련해 양국의 금융, 통화당국 간 고위급 협력 채널을 만들 것을 제의했다.

양측은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하고 세계 시장 공동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판다 보호협력 공동 추진 MOU'를 체결해 내년 초 중국에서 판다 한 쌍이 국내로 도입되는 길이 열렸으며, '대기질·황사 측정자료 공유 합의서' 체결로 중국 35개 도시 대기질의 실시간 측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G

한·중 양자회담 계기로 체결된 경제 MOU 및 합의문 현황

명칭		체결 부서
교역 확대 MOU (6건)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MOU	**한** 농림축산식품부 **중**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 수출 삼계탕의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MOU	**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	**한** 해양수산부 **중**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 MOU	**한** 관세청 **중** 해관총서
	한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와 중국의 '해관기업분류관리 제도' 상호 인정 약정 개정	**한** 관세청 **중** 해관총서
	한·중 경제무역 발전 공동 계획(2016~2020년) 요약	**한** 외교부 **중** 상무부
혁신 분야 협력 MOU (4건)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중국의 '제조 2025' 간 연계 협력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 **중** 공업신식화부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관한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 **중** 상무부
	소비자 보호 공정 거래 MOU	**한** 공정거래위원회 **중** 공상행정관리총국
	혁신 창업 MOU	**한** 미래창조과학부 **중** 과학기술부
제3국 공동 진출 MOU (3건)	제3국 시장 협력 진출에 관한 MOU	**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간 연계 MOU	**한** 기획재정부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한·중 투자 협력 기금 공동 연구에 관한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 **중** 상무부
금융 협력 합의문	통화 및 금융 협력 합의문	**한** 기획재정부 **중** 런민은행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박 대통령–아베 총리 첫 회담… 다자 차원서 북핵 문제 대응 협력 지속키로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조기에 가속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양 정상은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핵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회담을 출발점으로 삼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취임 이래 처음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자 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개최된 것으로 그간 정체되어온 양국 간 과거사 관련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경제 협력 활성화 : 제3국 공동 진출 지원, 청년 인재 교류 확대

한편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한·일 기업은 그간 아랍에미리트(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멕시코 만자니오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건설, 인도네시아 LNG 공동 개발 등 제3국 공동 진출 성공 사례가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일 재계회의(10월 25~26일)와 제47차 한·일 경제인회의(5월 13~14)를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 통신, 의료, 문화 등 분야에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협력을 촉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청년 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한국 한일재단–일본 일한재단, 10월

29일)됨에 따라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청년 중심의 한·일 청년 인재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한국 청년 인재 대상 채용 박람회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일 청년 인재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중이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일 청년 교류 지원 MOU를 토대로 청년 인력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협력의 또 다른 방안으로 LNG 협력이 추진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LNG 수입 1, 2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동북아 LNG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협력을 통해 LNG 수급위기 공동 대응, 동북아 LNG 허브 구축,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 통합 :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 경제 통합 및 TPP 참여

한·일 두 나라 정상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추후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FTA, RCEP 협상에서 유지해온 양국의 통상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 간 무역협정의 하나인 TPP는 2005년 출범 초기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2008년 미국의 참여 선언 이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

글로벌 이슈 협력 : 기후변화 등 협력 강화

양 정상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등 어려운 감축 여건 속에서도 37%라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지난 6월 30일)에 제출했으며,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한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제3국 공동 진출, 한·중·일 FTA 등 '메가(Mega) FTA' 협력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에 운영키로 합의했다. G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주요 성과

① 제3국 공동 진출, 인력 교류 확대, LNG 협력 등 경제 협력 활성화

- 제3국 공동 진출 강화 – 한·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키로 합의
  * 제3국 공동 진출 성공 사례 : 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멕시고 만자니오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 LNG 공동 개발 등
- 한·일 청년 인재 교류 확대 – 청년 중심으로 인력 교류를 확대키로 합의
  * 한·일 청년 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MOU 체결 (한국 한일재단–일본 일한재단, 2015.10.29)
- 한·일 LNG 협력 – LNG 수급위기 공동 대응 등 세계 1, 2위 LNG 수입국인 정부 간 협력 강화(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일본 경제산업성)

② 한·중·일 FTA, RCEP, TPP 등에서의 협력 논의

- RCEP, 한·중·일 FTA –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
  * RCEP :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지금까지 10차례 공식 협상 개최
  * FTA :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3국 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은 미개시
- TPP – 박 대통령은 양국 통상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자고 제의,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TPP의 한국 포함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대를 예상하며 우리의 참여 동향에 대해 관심 표명

③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2015.12. 파리)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④ 양국 간 고위급협의회를 통해 회담 성과 후속 조치키로 합의

- 제3국 공동 진출, '메가 FTA' 협력 등 심도 있게 협의하고 추진키로 합의

대화 재개 그 자체로 성공
한국이 주도적 리더십 발휘



1 블룸버그통신 11월 1일 "중·일·한 정상 완전한 관계 회복 선언" **2** 런민르바오 인터넷판 리커창 총리 방한 특별 세션 **3** 마이니치신문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서면 인터뷰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해외 언론은 공통적으로 "대화 재개 그 자체로 성공"이라며 3국 간 협력 복원에 합의한 것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동시에 중·일 사이에서 한국이 수행한 외교적 역할에 주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균형외교를 높이 샀다. 미국 언론은 3국 관계가 자국에 끼칠 영향에 주목해 한·일관계 개선을 크게 환영했다. 중·일 언론도 3국이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는 등 관계가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역사·영토 문제 등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어 더 실질적인 변화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유럽·미국 언론은 3국 정상회의가 3년 반 만에 재개된 사실에 의미를 두었다. AP통신은 "상당한 시간을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보내고 있는 3국이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진전"이라며 회담의 정례화를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한·중·일 정상은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다"면서 "이는 점차 둔화되는 경제를 부양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역사인식 차이에 따른 반목을 누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관계의 완전한 복원 선언"

미국외교협회(CFR)는 박 대통령의 균형외교와 이것이 자국에 끼칠 영향에 주목했다. CFR는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일본에는 투트랙(역사·안보와 경제 문제 분리) 전략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에 대비해 견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박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템플대 도쿄캠퍼스 로버트 듀재릭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은 3국 연쇄 회담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를 공동으로 내보냈다. 한·일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 한·미·일과 한·중관계, 남중국해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그 내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언론의 취재에 대한 답변이 한국 여론에 커다란 파문을 부를 수 있는데도 취재에 응한 배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측의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서면에서의 답변 내용은 종래대로 엄격했다"고 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 이후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3국 정상회의 후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을 배려하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의가 대화 재개라는 성과는 얻을 수 있었지만, 관계 개선까지는 변함없이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중국 언론은 동북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히 정상회의를 통한 경제 분야의 성과에 주목했다. 베이징대 국가관리협동창신센터 주닝 연구원은 홍콩 펑황왕(鳳凰網)과의 인터뷰에서 "중·일·한이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다면 15억 인구에 경제 규모가 15조 달러를 넘어서는 초대형 시장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중국은 물론 동북아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중·일·한 FTA 추진, 기다릴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3국 간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주권 문제로 정치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역사에 대한 직시가 최대공약수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중국 언론은 3국 정상회의 전날 진행된 한·중 양자회담에서도 경제와 더불어 정치 신뢰가 강화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현재의 중·한관계는 정치적 상호 신뢰도 강하고 경제·무역 협력의 질이 높으며, 인적 교류의 열기가 뜨겁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의 기고를 실었다. AP, AF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이 내보낸 보도에서도 한·중 양자회담이 다방면에서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주조를 이뤘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
"절충점 모색해 관계 개선 계속해야"

일본은 한·중 양자회담에 대해 북핵, 경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연대를 확인하면서 '밀월관계'가 부각됐다는 반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TPP의 대항축을 모색하는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 멤버이기도 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한층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간 마찰과 줄다리기가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한국은 향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3년 반 만에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신들은 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며 주목했다. 회담의 가장 큰 의제였던 위안부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합의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지만, 연내 문제 해결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교섭을 서두르기보다는 절충점을 모색해 관계 개선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은 국가 위신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협의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웃 나라로서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제로회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박 대통령의 외교 성과로 꼽기도 했다. 시즈오카현립대 고하리 스스무 교수는 같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조건 없는 회담을 주장한 아베 총리의 뜻이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조기 타결 목표에 합의한 것은 일본의 제로회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플러스"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 언론은 양 정상이 외교적 냉각을 깨고 역사 문제 해결 노력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실용적 관계를 향한 중요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어떤 형태든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에는 반갑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AFP통신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거의 4년 만에 열린 첫 정상회담인 만큼 기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의 의견을 게재했다. 이어 "추가 실무급 논의 및 조율의 물꼬를 트는 정상적 대화 채널 구축이 중요하다"며 회담 이후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동북아 외교 '포지티브' 게임으로 전환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용 | 국립외교원 교수

11월 1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3년 반 만에 개최됐다. 이번에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역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던 한·일·중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와 함께 다양한 협력방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를 직시하는 합의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3국이 역사와 정치·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으로 치달았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상회의 재개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이니셔티브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 외교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정치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정치안보와 관련해 3국은 한반도 문제와 북핵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중 FTA가 체결되면 단일경제권의 초석을 다지게 되고 RCEP 체결로는 북미와 유럽에 이은 '세계 3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이기도 한 3국이 LNG 수급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연대를 구축해 에너지 수요·공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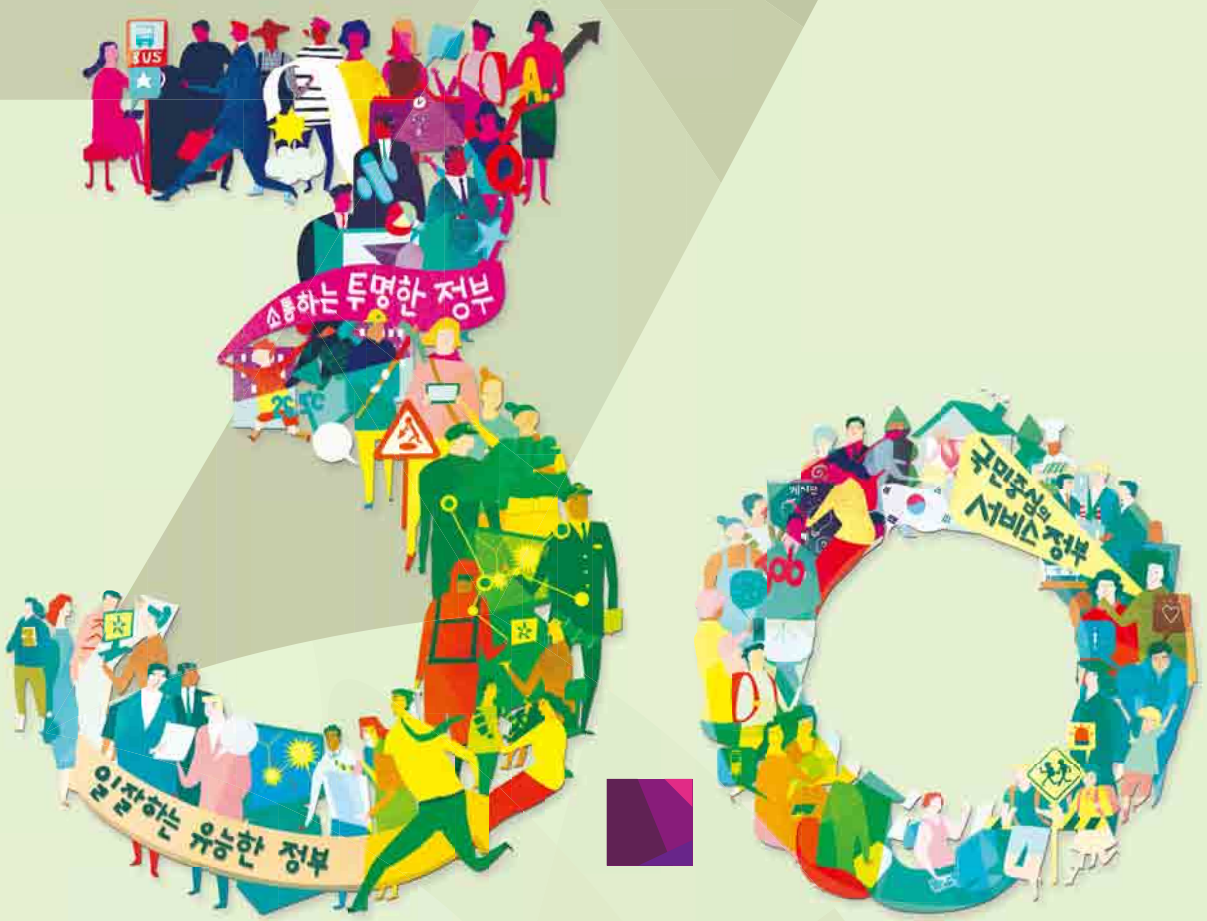
3년 반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정상회의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이 도출된 것은 3국 간에 그만큼 경제 협력 촉진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컸다는 것을 입증한다. 사실 한국, 일본, 중국은 정치·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데 강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먼저 3국 모두 안보와 관련해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동북아 정세 불안정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해양으로 확장일로에 있는 중국과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함으로써 안보 환경을 안정화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3국은 경제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내교역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3국 간 경제 협력의 기회 공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의의 경협안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갈등관계에 있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관련해 정상회의 개최 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3일 개최된 중국의 종전 70주년 기념식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각하고 전승국이라는 역사적 지분을 내세우면서 갈등관계에 있는 일본을 배척하는 상징성이 있었다.

중국이 역사 문제를 동원하면서 동북아 국제관계를 갈등과 배척이라는 네거티브 게임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행사에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적극외교를 선택했다. 중국의 네거티브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히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포지티브 게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에서 한국 외교가 지향하는 역할과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G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행정자치부
www.gov30.go.kr

한·프랑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박 대통령,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창의·혁신으로 세계 경제 재도약 견인"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나노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과 안보 분야를 포함해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1개 목표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담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행동계획은 ▶정치대화 심화 ▶경제관계 강화 및 다양화 ▶산업협력 및 신기술·혁신·연구협력 증진 ▶교육, 대학, 직업교육 및 학생 교류협력 강화 ▶문화협력 강화 ▶인적 교류 증진 등 11개 목표 분야별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대화 심화, 경제관계 강화 등 11개 목표 분야 구체적 협력 행동계획 채택

두 정상은 먼저 혁신적인 교통수단, 나노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산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프랑스 신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 한국의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프랑스의 34대 신산업정책 등 공통 관심 분야 신성장동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소재, 나노기술, 생명·보건과학, 생명공학, 제약, 기초과학, 정보통신기술, 민간 우주항공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수 과학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6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문화, 기술 혁신 및 산업을 연계하는 창조경제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간 융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공동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서명한 양국의 '창업기업 교류협력 의향서'에 따라 내년부터 양국의 창업기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한국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및 프랑스의 '기술 지원제도(French Tech Ticket)' 등의 지원정책을 보완해 양국 창업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학력과 학위를 상호 인정해 유학생 교류를 촉진하고, 프랑스 수능시험(바칼로레아)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문화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의상, 건축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리랑TV, KBS월드와 France24, TV5 Style 등 양국 방송의 상호 송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양자관계 전 분야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 지역·안보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개발 재원 조달 등 국제현안 분야에서 정상급·장관급 및 고위급 차원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양자 방문 및 다자 행사를 통해 당국자끼리 자주 만나고, 특히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행동계획 채택에 대해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실질 행동 중심으로 명시한 최초의 포괄적인 문서"라며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준거틀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공고한 지지를 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지지는 한·유럽연합(EU) 공동 언론발표문(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보다 진일보한 표현으로 프랑스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명기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선물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차를 좋아하는 올랑드 대통령을 위해 고려시대 흑자(黑磁)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금잔 다기 세트'를 선물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19세기 말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찍은 사진 21장이 담긴 앨범과 해인사 위성사진, 듀퐁 만년필 등을 선물했다. 19세기 말 사진은 프랑스의 중국 주재 무관이었던 알베르 다마드 대위가 1890년 우리나라에 출장을 와서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찍은 것들로 수교 13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역사적 깊이를 상징한다.

해인사 위성사진은 프랑스의 위성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87×87cm)으로, 한·프랑스 간 선도적 협력 분야로서 이날 양 정상이 채택한 행동계획에 포함된 우주과학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뜻한다.

한·프랑스 경제협력 및 고등교육 포럼
창의적 미래 성장동력 발굴 협력 모색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11월 4일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경제협력 포럼 및 고등교육 포럼'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최근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가고 있다. 프랑스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프랑스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와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 협력방안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창의적 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해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제과점이 만든 빵이 한국에도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프랑스 전통의 브리오슈 빵에 한국 고유의 단팥 앙금을 넣어 각각이 지닌 맛을 최대한 끌어올린 이 빵은 '한국의 빵'이라는 뜻의 코팡(Kopan)"이라며 "코팡이 한국과 프랑스가 나아가야 할 협력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국 경제, 교육계 간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 '함께 빵을 나눠먹는 가족 같은 친구'라는 뜻의 '코팽(Copain)'으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G

한·프랑스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MOU 현황

명칭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체결 부서
창업기업 교류협력 의향서	• 양국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망 창업기업 상호 지원 • 양국 혁신창업가 교류 및 해외 창업 기회 확대	**한** 산업통상자원부 **프** 재정부
우주 분야 협력 활동에 관한 양해각서	• 우주과학, 탐사, 위성 등 분야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등 협력 • 위성정보 활용, 우주법, 글로벌 이슈 대응 등으로 양국 협력 분야 확대	**한** 항공우주연구원 **프** 국립우주연구센터
학력·학위 상호 인정 약정	• 양국 고등교육 학력 및 학위 상호 인정을 통해 학생·대학 간 교류 증진 • 교육 분야 교류 촉진 및 양국 고등교육 국제화 기여	**한** 교육부 **프** 교육부
문화·예술 협력 행정약정	• 예술, 문화재, 박물관, 출판물 등 문화예술 분야 포괄적 협력 확대 • 양국 문화콘텐츠 공동 제작 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실질 협력 기반 마련	**한** 문화체육관광부 **프** 문화통신부
교통 분야 협력 의향서	• 교통 및 인프라 분야의 정책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상호 진출 지원 • 양국 교통 분야 관심사업 진출 확대	**한** 국토교통부 **프** 생태에너지부
관광 분야 협력 행정약정	• 양국 상호 방문 관광객 확대를 위해 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협력 • 관광 분야 투자 및 수요 확대를 통해 양국 지역경제 활성화	**한** 문화체육관광부 **프** 외무국제개발부

* 개별 문건의 정식명칭은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약정(Agreement) 등 상이

※ 11월 4일 개최된 '한·프랑스 경제협력 및 고등교육 포럼'에서 정상회담 계기 3건의 MOU 별도 체결 : ①복수학위 협력협정(KAIST–INSA Lyon) ②직업교육 및 산업협력 의향서(한국 교육부–프랑스 교육부) ③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MOU(한국 대학교육협의회–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정상외교 순방 동행업체 후속 지원 강화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 중심으로 정보 공유와 성과 관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8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 도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동 진출 성과 확산 경제사절단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순방에는 늘 많은 기업인이 참가한 경제사절단이 함께했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은 현지에 마련된 비즈니스 포럼, 1 : 1 상담회, 네트워킹 세미나 등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중소기업들은 '대통령과 함께 온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현지에서 높은 신뢰를 받았고, 그 결과 직접적으로 수출 계약을 맺는 등의 성과를 내고 돌아왔다.

순방에 동행했던 특수원단 업체인 보광직물은 기존에 여섯 번이나 문을 두드렸어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콜롬비아 업체에 드디어 수출을 하게 됐고, 그동안 내수시장에만 의존해온 의료기기 업체인 닥터서플라이는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5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확정지으며 처음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한 기업들은 순방 당시 '정부가 보증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국내로 복귀한 후에는 중소기업이라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을 추가로 발굴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15년 5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는 순방 동행 경제사절단과 '사후 간담회'를 갖고 참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을 돕고 있으며, '후속 비즈니스 상담회', '상시 비즈니스 지원' 등을 통해 후속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은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후속 지원 세부 내용이다.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 '성과 공유 간담회'

정상외교 순방에 동행한 기업들은 국내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산업

통상자원부와 KOTRA가 주최하는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갖게 된다. 기업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면서 얻은 성과를 발표하고, 현지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기업들의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고, 기업들이 내놓은 건의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심한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위한 4개 전담팀

정부는 정상외교 이후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4개의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전담팀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맺은 양해각서(MOU)의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한다. ▶비즈니스상시화 TF에서는 1:1 상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매칭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외국인투자유치 TF에서는 외자 유치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제협력총괄 TF에서는 MOU 후속 조치를 지원하며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인력해외진출 TF에서는 국내 청년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한다.

국내 기업들을 위한 상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KOTRA에서는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상시 비즈니스 지원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 : 1 상담회에 참가했던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벌인다.

먼저, 비즈니스상시화 TF 사무국을 운영해 상시 비즈니스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과 추진 사항을 논의한다. 무역·투자 등 유망 프로젝트도 상시 관리한다. 특히 1 : 1 상담회 참가 기업들 중에 사후 지원 수요가 있는 기업, 성과 창출을 위해 사후 지원을 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전문 인력도 활용하며 금융, 보험, 인증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확대한다. 기업들에 대한 상시 관리기간은 상담회에 참가한 이후 최대 1년간이다. 1년이 지난 후에는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일반 서비스로 전환해 계속적으로 지원받게 할 방침이다.

사후 지원 서비스 내용

종합사업	맞춤형 사업
• 민관 합동 사절단 파견 • 분야(품목)별 후속사절단 파견 • 바이어 초청 후속 상담회 개최 – 경제사절단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도 후속사절단 및 상담회 참가 기회 제공 – 지방 설명회를 개최해 지방 소재 기업의 사업 참가 기회 확대	• 신규 바이어 발굴 • 품목별 시장조사 • 계약 및 MOU 체결 지원 • 바이어 후속 상담 지원 – 기존 상담 바이어의 후속 상담 및 신규 상담 희망 바이어 발굴 및 연계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수출금융, 프로젝트, 무역 등

후속사절단 파견 및 후속 상담회도 진행된다. 후속사절단은 그동안 총 3회 파견됐으며, 56개 기업이 바이어 217개사를 만나 총 48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바이어를 초청한 후속 상담회도 개최됐으며, 82개 기업이 국내로 초청된 바이어 38개사를 만나 총 25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과 품목별 시장조사, 계약 및 MOU 체결 지원, 바이어 후속 상담 지원, 수출금융과 무역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A업체는 지난 9월 정상외교 지방 순회 설명회에 참석해 정상외교 비즈니스 모델을 접하고 난 뒤 후속사절단에 참여했다. 이후 후속사절단으로 파견돼 쿠웨이트 바이어와 500만 달러의 MOU를 체결하고 돌아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사후 지원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진행 현황 및 성과, 애로사항 등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상시적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방침이다. G

미국 순방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사후 간담회

“기대 이상 성과에 매우 고무적” “미흡한 점 보완 더 큰 성과 도울 것”


홍중식 기자

기업 대표들은 정상외교 순방 동행을 통해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헌릉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10월 13~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했던 경제사절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지 문제점을 듣는 ‘사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홍 KOTRA 사장,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던 9명의 기업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KOTR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사절단 상담회에 104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중견·중소기업의 비중이 95%에 달했다. 경제사절단이 중견·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난 5월 KOTRA에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 경제사절단 파견부터 사후 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사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9개 기업의 대표들은 미국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각 기업이 얻은 성과를 발표하고, 더불어 현지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요청사항을 덧붙였다.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KOTRA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삼광글라스의 박만수 전무였다. 박 전무는 “뉴욕에서 1:1 상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유통업체 1위인 아마존 관계자를 만나 직접 설명을 듣고, 미팅 기회를 가졌던 것에 만족한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일정 확정이 빨리 안 돼 현지에서 바이어를 초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OTRA 경제외교지원실 허병희 실장은 “방미 일정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을 당겨 잡기 힘들었다”며 “보안 등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일정이 더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직접 부딪힐 기회 얻어”

두 번째 발표자는 신성솔라에너지의 이완근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이번에 워싱턴에서 레보글로벌그룹(Revo Global Group)과 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인허가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다만, 건설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KOTRA 상시비즈니스지원실 이승희 실장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가 설립됐다”며 “센터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안내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 업체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신생기업)인 핀스토리였다. 핀스토리는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미국의 전문 투자가에게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신준 대표는 “미국 방문 행사에 기대가 낮았는데 실제 참여해보니 규모 면에서도 기대 이상이었고 실제 투자자들도 많았다”며 “특히 현지 IT 기업 대표들이 다수 참여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SK인포섹 강용석 본부장 역시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해외로 나간 것이 처음이라 기대를 안 했는데 성과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밝혔다. 세계 사이버 시장을 장악하고 있



홍중식 기자

10월 30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김재홍 KOTRA 사장(왼쪽에서 아홉 번째), 경제사절단 동행 9개 기업 대표, 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모여 사후 간담회를 가졌다.

는 미국에서 과연 국내 기술로 경쟁이 가능할까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인포섹은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정부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국의 유수 기업과 함께 협약을 맺어 크로스 셀링(Cross Selling : 교차 판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차량 자동 검문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인 하이젠의 이명식 대표도 "미국에 특허를 내고 미 국방부로부터 선도 기술로 선정된 상태에서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는데, 우리 아이템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에이전시를 희망하는 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인지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KOTRA 김 사장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며 "이러한 상대방 에이전시 정보가 필요하면 상시지원실에서 해외 무역관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원료의약품 업체인 이니스트에스티 김국현 대표는 "미국 진출(FDA 승인)이라는 목표가 있어 경제사절단에 참가하게 됐는데, 항암제 신물질을 보유한 LSK바이오파마라는 좋은 회사와 연결될 수 있었다. 그쪽에서 원료 개발을 하면 우리가 생산해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에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배웠고, 밖으로 나가 부딪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양해각서(MOU) 행사 시간에 대한 공지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을 덧붙였다.

"기업 신용 높이는 계기 미국 진출 기반 마련"

검색엔진과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는 "미국의 루미노소라는 회사와 MOU 체결을 진행하는 데 경제사절단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파트너사가 와이즈넛을 잘 모르고 있어 좀 더 협의를 해야 했는데, 경제사절단으로 방문한 뒤 협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인 애니랙티브 임성현 대표는 "신생기업이라 스스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경제사절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투자 유치와 후속 사업에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KOTRA의 수출기업화지원실 권중헌 실장은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의 제품이 좋아서 큰 성과를 내고 왔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0년 동안 포기했던 미국 진출의 시장성 확인"

이날 업체 마지막 발표자는 유일한 홍일점이던 테르텐의 이영 회장이었다. 저작권 보호 솔루션 업체인 테르텐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다 마땅한 시장이 없어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뒤 사정이 확 달라졌다. 미국에서 보안 분야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었던 게 이번 사절단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KOTRA가 앞으로 '품목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또한 KOTRA 김 사장은 "업종 전문가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 전문가 수를 늘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각 전문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KOTRA 김 사장은 "KOTRA는 중소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음 기회에도 함께 참여해 사업적으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G

91.7% 공공·준정부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창출·고용환경 개선에 탄력


노사정위원회

지난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 제89차 본위원회에서 각계 위원들이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1월 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통폐합 예정 3개 기관 제외) 313개 중 91.7%인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58→60세)으로 정년 퇴직자가 줄어들면 신규 채용이 급감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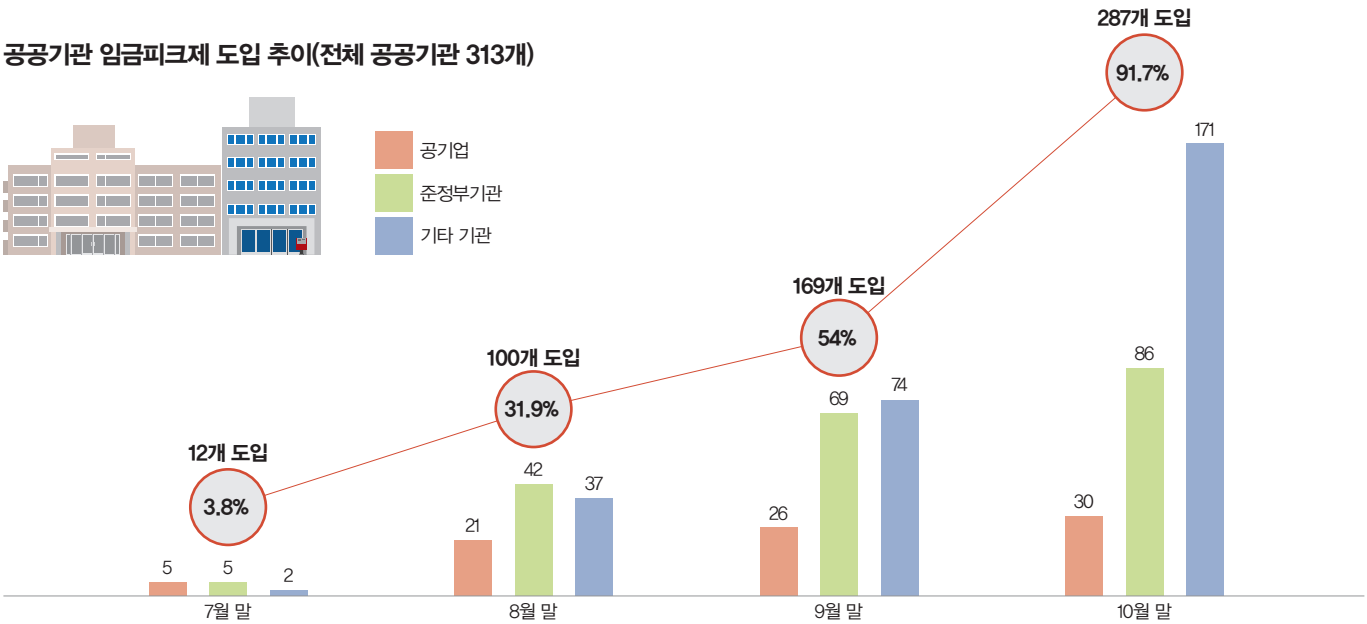
또한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성과물로, 8월 6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와 국립대학 병원 4개(전남·충북·충남·부산), 기타 기관 2개(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287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적용인원으로 보면 전체 공공기관 313개의 총 정원 약 30만4000명 가운데 26만8000명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92.3%에 달한다.

10월 말 기준 287개 공공기관 참여
노사 간 임금피크제 필요성 공감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86개는 모두 도입하기로 했고, 기타 공공기관 197개 중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0개와 국립대학 병원 4개, 기타 기관 2개(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를 제외한 171개가 도입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최근 4개월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도입기관 수는 누계 기준 7월 말 12개에서 8월 말 100개, 9월 말 169개, 10월 말 287개를 기록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자료 : 기획재정부

세웠다. 12월에서 10월까지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음에도 조기 도입에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 앞에서 노사가 뜻을 모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기관은 10월 31일 강원랜드를 마지막으로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부터 임금피크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이 관련 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KDN,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15개도 11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고, 이 밖의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의 경험과 연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직무 개발 등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해나가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살펴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하며, 이미 일부 직급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 정년 연장 기관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해 신규 채용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연령별 인원 분포, 신규 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 간 임금 격

2016년 임금피크제 적용 주요 공공·준정부기관 현황

기관명	유형	별도 정원(명)*
한국남부발전	공기업	57
한국서부발전	공기업	46
한국남동발전	공기업	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준정부기관	18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248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	17
한국동서발전	공기업	56
한국중부발전	공기업	69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115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87
한국농어촌공사	준정부기관	232
한국수력원자력	공기업	261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63
한전KPS	기타 기관	133
한국국토정보공사	준정부기관	140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567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387

* 임금피크제로 발생하는 신규 채용 예상 인원 자료 : 기획재정부

차 수준 등을 고려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신규 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매년 신규 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목표 초과 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 부분은 총 인건비 인상률의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 인건비에서 차감하게 된다.

조정기간 평균 2.5년
각 기관별 환경에 맞게 적용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정기간은 평균 2.5년으로 보통 퇴직 2~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곳이 주를 이룬다. 임금 지급률은 평균적으로 기존 본인 임금 기준 1년 차에는 82.6%, 2년 차 76.2%, 3년 차는 70.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매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다. 앞으로는 2016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 등을 조기 확정해 적용 기관의 이해를 돕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임금피크제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기준으로 도입·정착 노력과 제도 적합성 등을 평가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 힘을 실어주게 된다.

임금피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각 기관은 연령별 구성 비율, 종사자 유형 등 인력 현황과 임금체계를 분석하고, 동종·유사업종 및 해외 사례를 연구해 감액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년보장형은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게 되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재고용형이라고도 불리는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임금 감액 기준은 총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하거나 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식, 특정 수당·상여금·변동급 등을 감액하는 방식이 있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등 각 기관의 환경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임금이 기준 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크 임금 비율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다음 연도 1월 말경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 4211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민간으로 확산 움직임 기대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절감한 재원으로 임금피크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6년에 총 4211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공공기관도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청년 고용에 나섰다. 이 회사는 사무, 발전, 화학, 정보통신(IT) 등 전 분야에 걸쳐 50명을 신규 채용하고, 선발된 청년 및 고졸 인턴사원이 3개월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실무 경험이 쌓이면 심사를 거쳐 8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정년 연장 대상 직원 47명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남부발전은 내년부터 신규 채용을 시작한다. 정년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데 그 2년간 임금지급률을 1년 차 60%, 2년 차 5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2016년 57명, 2017년 48명, 2018년 46명 등 약 150명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임금피크제로 2년간의 정년 연장분을 줄여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 이종식 관리본부장은 "줄어든 인건비로 향후 3년간 150여 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남부발전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추가 채용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40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채용계획과 청년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공지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신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혜택이 없는 204개 공공기관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 움직임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과 국립대 병원은 현재 공공연구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해 정년 추가 연장 등을 요구해 도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제도개선팀 김위정 팀장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해 전체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임금피크제 현장 적용에 대비해 별도의 직무를 개발하고,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



일러스트: 전희성

그는 울산에서 태어나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살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뒤 조직폭력배가 됐다. 중학교 때 이종격투기 선수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뒤 고1 때 조직에 스카우트됐다. 사고를 친 뒤 퇴학당할 위기에 처했고, 다니던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경북 김천예술고 서수용 교사를 만났다. 서 교사는 학교를 설득해 전학을 도운 것을 시작으로 그의 재능을 발견해 성악을 가르쳤다. 레슨이라고는 교회에서 무료로 지도받은 것이 전부이던 그는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대학에 진학해 성악을 공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경험'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귀중한지를 설명할 때면 영화 〈파바로티〉의 실제 주인공 김호중 성악가가 떠오른다. 만약 김호중 성악가가 서 교사를 만나 성악을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실로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한 이들이 많다. 롤모델을 만나는 '직접' 체험이 아니라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간접' 체험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자유학기제'라 쓰고 '행복교육'이라 읽는다



박근혜정부가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이유는 청소년기의 직간접 체험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 및 진로 선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그 핵심에는 '체험'이 있다.

자유학기제는 2015년 8월 현재 2551곳의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1월 중순 '2016년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학생, 교사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도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은 물론 창의성, 인성, 사회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 자신의 역량이 강화됐다고 인식했다.

자유학기제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전남의 한 여자중학교는 자유학기제 덕분에 2014년 학교폭력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다. 2013년 전체 학생의 83.7%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8명이었지만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2014년 전체 학생의 91%를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해 대전에서 근무하는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활동을 하고 진로를 세우면서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생긴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학교 풍토가 변해 학교폭력이 급감했다는 얘기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다각도로 이끌고 있는 자유학기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찾길 응원한다. G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편성

내년 전국 3204개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

박해윤 기자



4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체험마당에 자유학기제 홍보 부스가 마련됐다. 자유학기제 부스에서 학생들이 3차원 형상을 만들고자 3D펜으로 도면을 그리고 있다.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성과·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꿈과 끼를 탐색하고,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2013년도 42개 학교(1.3%)에서 2014년 811개 학교(25%), 2015년 2551개 학교(80%)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전국 3204개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를 Q&A로 정리했다.

Q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A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즉 학생의 관심사에 기반을 두어 ‘자유학기 활동’을 주당 10시간 이상, 학기당 총 170시간 이상 편성·운영하고 국어, 수학, 영어 등 기본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제도다.

Q 시범 운영의 성과는 무엇인가.

A 교육 현장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보다 높았고, 자기표현력 및 학교 구성원 간 친밀도 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Q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A 우선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한다. 연수과정 운영, 교사 학습 공동

체 구축, 실천 사례 연구대회 등을 통해 교원의 자유학기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에만 총 23회에 걸쳐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교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2013년 30개에 불과한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를 2016년 340개가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자유학기제 실천 사례 연구대회를 신설하고 '수업 개선 분과(1인 이상)', '학교 교육과정 운영 분과(3인 이상)' 등 2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자유학기제 추진 근거,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체험처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

A 부·처·청, 민간, 대학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험처 5만8882개, 체험 프로그램 10만2507개를 확보했다(올해 7월 16일 기준).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이 의무화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체험 자원 지도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운영 및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약 6700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A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직업체험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양질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과 대학생 동아리에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또한 체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연수를 시행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청용 '진로체험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진로체험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질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서 '1학교 1학부모 지원단'을 운영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Q 농어촌 지역 등 체험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있나.

A 공공·민간기관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운영한다.

Q 자유학기 동안 학생의 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A 자유학기 동안 학교에서는 지필고사는 보지 않지만 수행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형성평가 등 다른 방식으로 성취 수준을 확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하여 학생들의 학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들은 자기표현력 및 학교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아지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Q 자유학기의 성과를 일반학기로 확산하는 방안이 있나.

A 내년에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 연구학교 80곳을 지정·운영해 학교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모델학교·선도학교로 활용하고 운영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진로 탐색 등을 일반학기와 연계 운영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강화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실례로 강원 함태중은 교실 수업 및 평가 개선, 동아리 활동을 일반학기와 연계하고, 대구 동변중은 진로탐색 활동을 중학교 전 학년에서 진행한다.

Q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나.

A 자유학년제로의 확대는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은 초·중등 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개혁 핵심 과제로 선정한 자유학기제를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G

자유학기제 현장 대전 남선중

방송 뉴스 제작 체험 우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



김형우 기자

대전 남선중 2학년 2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의 일환으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방송 뉴스를 제작해보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권총으로 궤짝을 쏜 괴테가 괘씸해 괴테에게 궤짝의 부서진 귀퉁이를 붙여 궤짝을 완성해놓으라고 했다."

"오~ 짱이다."

도통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을 틀리지 않기 위해 한자 한자 힘주어 읽는 아이. 그리고 이를 응원하는 친구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땐 민망하지 않도록 '까르르' 웃어준다. "생각보다 내가 발음이 좋아서 놀란 친구 있어요? 방송에 관심이 없어도 재밌게 즐기면 돼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자신 있게! 재밌게!"라며 선생님도 아이들을 격려한다.

판서를 하는 선생님도, 딴청을 피우거나 조는 아이도, 교과서도 없는 수업. 그 대신 선생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교과서 대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10월 30일, 방송 뉴스 제작체험을 위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찾은 대전 남선중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을 만났다. 이들은 본격적인 뉴스 제작에 앞서 한창 발음 연습 중이었다.

교실을 떠나 현장에서 하는 직업체험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이다. 남선중은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시범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1~4교시까지 오전 수업은 평소와 똑같이 교실에서 받고(주 23시간) 오후에는 이같이 현장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진로검사, 교내 강연, 스포츠 활동 등), 꿈탐색 동아리 활동을 한다. 남선중은 대전지방법원, 충남대 자연사박물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법관, 학예사, 과학수사대 등 20여 개의 직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만든 뉴스 직업체험 넘어 자신감 얻는 계기

"저 카메라 안에는 누가 있죠?"(차유진 미디어센터 강사)

"선생님이요!"(학생들)

"아니에요. 카메라 안에는 시청자의 눈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본격적인 뉴스 제작 체험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31명의 아이들은 세 조로 나뉘어 각자 앵커, 기자, 기상캐스터 등 역할에 따라 연습한 대본대로 연기했다. 조감독을 맡은 학생이 슬레이트를 내려치며 '큐' 사인을 보내면 시그널 음악과 함께 앵커가 등장해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한다. 프롬프터(무대 밖에서 대사를 보여주는 기계)를 보느라 카메라를 보지 못하는 아이, 마이크를 켜지 않고 말하는 아이, 자신의 모습이 어색한 듯 연신 히죽이는 아이…. 아이들의 다양한 표정이 화면 속에 담긴다.

화면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기술실에 들어가 방송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관찰했다. 미디어센터 강사가 음향장치와 프롬프터, 화면조정장치를 설명한 뒤 학생들이 직접 기계를 작동해본다. 화면 밖에서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기술실에서 아이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계속해서 질문한다.

직업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직업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태도도 배운다. 진로지도 담당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며 '안전, 집중, 반응' 세 가지를 강조했다.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전 과제를 주고, 다른 학생의 체험을 본 후에는 크게 박수 쳐주도록 유도했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라 더 흥미 있었어요. 기술실은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다 같이 만든 뉴스라 더 뿌듯해요."(이지원 양)

"지원이 말대로 방송을 제작하는 일은 여러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방송에 관심이 있든 없든 오늘 경험이 단순한 방송체험이 아닌, 협동심과 자신감을 얻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차유진 강사) G



김형우 기자

현장의 말… 말… 말



"영화배우 역할을 맡아 인터뷰하는 연기를 했는데 너무 떨리고 어색했어요. 방송 쪽에서 일한다면 화면에 나오지 않는 카메라맨을 하고 싶어요. 자유학기제에서 해본 직업체험 중에는 법원에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과학자가 꿈이라 다음엔 연구실 탐방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평소 학교 수업에도 만족하고 자유학기제도 좋아요. 자유학기제 기간이 1년 정도 더 늘어나 학업과 적절히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 **이경모(남선중 2)**



"저는 기자가 꿈인데 직접 방송체험을 해보니 제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같이 꿈이 확실한 친구들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보다는 한 가지 직업체험을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과 꿈 탐색 동아리 활동도 해요. 자유학기제 동안 학업에는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학교 분위기가 들떠 있는 것도 걱정이에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좋아하세요. 이왕 하는 것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좀 더 심화돼서 신문기자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어요." | **박세은(남선중 2)**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교사로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뿌듯합니다. 저 역시 교사라는 직업 외엔 체험해본 게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몸소 경험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교실 수업도 교과서 중심에서 열린 수업으로 운영해요.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의 의식주 문화를 배우는 시간엔 모둠별로 신분에 따라 달리 먹었던 음식을 조사해서 가져오게 한 뒤, 발표하고 서로 나눠 먹는 식으로 진행해요. 평소 같으면 시험 일정에 맞추느라 교과서 내용 요약하고 학습지 푸느라 이런 수업은 하기 어렵죠.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학업 부담이 덜한 1학년 2학기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직업체험 기관과 자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책상에 앉아 하는 공부는 학력 향상이 목표가 되어 학업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방황을 하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강지영(남선중 교사)**

자유학기제 현장 경남 창원 창덕중

“꿈을 키우고 펼치는 기회, 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조영철 기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타와 색소폰반’에서 김경민(기타) 양과 지서연(보컬) 양이 함께 노래 ‘여행을 떠나요’를 신나게 불렀다.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10월 31일 오후 KTX 창원중앙역. 택시를 타자마자 경남 창원 창덕중의 자유학기제 총괄 운영자인 이종수 교사(연구부장)의 조언대로 “25호선(창원시 의창구 용동과 동읍을 잇는 국도 25호선 대체우회도로)을 따라 가주세요”라고 말하니 1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창덕중학교 현관 전광판에 ‘자유학기제 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방문객용 슬리퍼를 신고 1학년생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자유학기제 소개 책자와 전시물이 보였고, 한쪽엔 동문인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가 지원한 학교역사관도 있었다. 이 교사를 기다리며 그가 이메일로 보내준 ‘창덕중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를 들춰봤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창덕중은 2013년부터 농산어촌 중규모급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을 적용한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창덕중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주로 오전에 교과 수업, 오후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한다. 월요일은 예체능 수업, 화요일은 주제선택 활동 1(스토리텔링 수학·국어 수업), 수요일은 진로와 직업 수업, 목요일은 꿈 동아리(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진로탐색 동아리), 금요일은 주제선택 활동 2(7개 프로그램)를 운영한다.’

‘주제선택 활동 2’ 7개 프로그램 금요일 오후 2시간 동안 운영

5분여를 기다렸을까. 감색 점퍼를 입은 이 교사가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고생하셨네요. 오늘은 ‘주제선택 활동 2’가 진행돼요. 학교에서 제안한 13개 프로그램 중 1학년생 152명이 선택한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죠. 협력기관에서 지원해주신 세 분, 저희가 채용한 두 분, 학교 선생님 두 분이 맡으셨어요. 벌써 2시가 됐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교사의 안내로 먼저 ‘그릴 자유반’을 갔다. 학생들은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흥미를 느꼈는지 연신 복도를 내다봤다. 수업은 교사가 설명을 한 뒤 아이들이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사는 “이 학생들은 그간 웹툰 작가, 신문사 화백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창 모둠을 짜느라 바쁜 ‘세계사와 대중음악반’을 뒤로하고 ‘드라마로 보는 역사반’을 관찰했다. 학생들은 카메라 플래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화 〈국제시장〉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영상에 집중했다. 교실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그다음 ‘기타와 색소폰반’이 진행되는 도서관으로 가자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통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소녀들은 이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빠가 기타를 가르쳐주신다고 했는데 바쁘셔서 그러지 못했는





조영철 기자

1 '난타반'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9, 10월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연습한 난타 합주곡을 연주했다. 2 '드라마로 보는 역사반' 학생들은 카메라 플래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화 〈국제시장〉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영상에 집중했다.

데, 학교에서 배우게 돼 좋아요. 서연이랑 친해진 것도 좋고요. 작곡가가 꿈이라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요."(김경민 양)

"확실히 중학생은 초등학생과 달리 공부 스트레스가 더 많은데요. 이런 취미를 만들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노래를 즐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지서연 양)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가 이어졌다. 수업이 흡사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한 장면 같다.

"개사는 멜로디만 따오고 가사를 따로 붙이는 일인데 개사를 할 때는 생각을 해야 해. 기술과 예술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이경찬 교사)

"기술자와 예술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크크."(학생)

"예술은 뭔가 필(Feel)이 오잖아요. 하하."(학생)

"응, 맞아. 기술과 예술의 차이는 독창성이야. 예술은 '단 하나'야.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지. 그런 점에서 예술은 진정성이 있어야 해. 너희가 하는 개사도 그래야 하고."(이경찬 교사)

다리를 꼰 아이, 소매로 안경을 닦던 아이, 기타 줄을 튕기던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이번에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난타반'으로 향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두 시간 즉, 자유학기제가 진행된 두 달 동안 총 16시간만 연습했는데도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를 낸다. 쉬는 시간마저도 북 언저리를 맴도는 조하은 양의 꿈은 뭘까. "백댄서가 되고 싶어서 난타를 하며 리듬감을 키운다"는 그가 볼멘소리로 말했다.

"꿈 동아리를 하면서 뮤지컬 안무가 분을 만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꿈을 펼치고 싶어 난타를 배우는데 2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의상디자인반'. 실습이 한창이라 말 붙일 틈이 나지 않는다. 수업이 끝난 뒤 생글생글 웃는 송태준 군에게 다가가 같은 질문을 했다.

"화가가 꿈이에요. 직업체험을 하면서 제가 다니던 미술학원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미술뿐 아니라 공부도 잘해야 한다고 알려주셔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전 목표가 있어요(웃음)."

참관을 마친 뒤 학교를 나와 택시를 기다렸다. 콜택시 회사 대여섯 곳에 연락했지만 외진 곳이라 택시가 없단다. 20분 만에 잡아탄 택시 안에서 난타반 학생의 말이 떠올랐다.

"학교 주변에서 뭘 하기가 어려워요. 자유학기제 동안 실컷 뭔가에 빠지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2시간만 난타를 배우는 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G

학부모·교사들의 말… 말… 말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양한 것을 배우다 보니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요." | **구혜진(42·조하은 양 어머니) 씨**

"학생들이 충분히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더 늘리고, 전문 역량이 있는 교사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 **박경연(43·송태준 군 어머니) 씨**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때 아이들에게 학업 동기가 생겨 더 열심히 공부해요. 믿고 맡겨주십시오." | **이종수 연구부장**

"이 기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다양한 탐구활동과 토론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역량을 발휘해 좋은 수업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 **이희운 역사 교사**

자유학기제 현장 전북 순창북중

“엎드려 잠만 자던 아이들 눈빛이 초롱초롱 달라졌어요”

지혜영 기자



전북 순창군 순창북중 1학년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서 ‘나 자신’을 탐색해보는 수업을 하고 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전교생이 147명인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북중학교. 11월 2일 오후 미술 수업이 한창인 1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다. 이날은 자유학기제 교과과정 중 하나인 미술 수업이 있는 날로, ‘탐색 마인드 맵 그리기’를 통해 나 자신을 탐색하며 향후 진로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제 꿈은 작가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글쓰기, 운동, 책읽기 등이고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는 사람 등입니다.”(1학년 정민상 군)

“제 꿈은 모델입니다….”

“제 꿈은 요리사입니다….”

정민상 군의 발표에 이어 다른 아이들도 연단 앞으로 나와 각자 하고 싶은 일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주눅 들거나 떨지도 않고 마치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를 이어갔다. 미술 수업과 자유학기제를 총괄하는 김하강 연구부장은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기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아이들의 성격 변화입니다. 사실 남학생들이니까 가끔 싸움도 하고 아이들끼리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로 진로체험을 나가고, 악기를 다루거나 수영을 배우는 등의 활동이 많아진 이후 아이들 성격이 바뀌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질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소외되는 학생도 없고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끼리 다투는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 순창북중은 매주 월요일에 음악·미술 수업(2시간), 화요일에 진로체험 활동(3시간), 수요일에 기타·색소폰·플루트·바이올린 등 악기 배우기(2시간), 수영 배우기(2시간) 등의 프로그램으로 2년째 자유학기제(1학년 2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는 시간
아이들 인생에 오래 남을 추억

순창북중은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동시에 아이들의 인생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악기와 수영 배우기’를 진행하고 있다. 악기와 수영을 자유학기제 교과과정에 적극 추천한 사람은 김성범 교감이다.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운동보다 음악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악기를 다루면 사춘기 아이들의 성격과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악기 수업을 받아온 2학년 아이들은 이 지역에서 ‘인성이 무척 좋다’고 입소문이 나 있거든요. 모두 악기 배우기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색소폰, 플루트,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와 올해 10월에 학부모를 초대해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배운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과연 연주회를 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아이들은 기적처럼 훌륭한 연주를 해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무척 대견하다’,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괜한 걱

정을 했다',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김성범 교감은 "학교에 오면 엎드려 잠만 자던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모두 자유학기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악기 실습이나 외부 체험을 다양하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한 처지라 그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호영 기자


순창북중

1 강희구 교장, 김하강 교사, 김성범 교감(왼쪽부터)은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제도"라고 밝혔다. 2 검찰청을 방문해 진로체험을 하고 있는 순창북중 학생들.

학교 교무실 옆 벽면에는 그동안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다녀왔던 기록과 활짝 웃는 사진들이 한가득 전시돼 있었다. 학교에서 그동안 진로체험을 나간 곳은 순창군청, 담양 소시지체험장, 남원검찰청, 임실 치즈테마파크, 전북 119안전체험관, 순창경찰서, 순창신문사 등 총 18곳 정도다. 아이들은 이런 현장 체험을 통해 공무원의 역할, 검찰과 법원에 대한 이해, 소방관 체험, 경찰과 기자의 역할 등에 대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을 다녀온 뒤에는 공책에 소감을 작성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해볼 기회를 갖는다.

기자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체험 사진들을 바라보던 강희구 교장은 "과거에는 부모 생각에 따라 아이들의 진로가 좌우됐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아이들 스스로 끼와 적성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학기제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G

자유학기제 미니 좌담회


정민상 김은호 김수환 김진중 권민혁

미술 수업 참관을 끝내고 교무실로 돌아와보니 김수환(중 2), 김진중(중 2), 정민상(중 1), 김은호(중 1), 권민혁(중 1) 등 다섯 명의 학생이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하강 연구부장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학교생활이 더욱 즐거워졌다고 말하는 아이들"이라며 학생들을 소개했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고.

진로체험 등이 자신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됐나요.

정민상 네~ 제 꿈은 작가인데, 국어 선생님이 진로체험 시간에 문학여행을 자주 데리고 나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에 대해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김은호 제 꿈은 경찰관이에요. 남원경찰서에 가서 직접 총도 만져보고 수갑도 채워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김수환 저는 제 꿈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체험활동 시간에 요리를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요리사가 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김진중 저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문 강사님들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바리스타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권민혁 현장 체험을 하면서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생각해볼 기회가 있어서 좋아요.

자유학기제 이후,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수환 학교에서는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꿈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학교가 재미있어지고 자꾸 오고 싶어졌어요.

김진중 자유학기제 덕에 플루트를 시작했는데, 재미있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정민상 친구들도 만족하는 것 같고, 부모님들도 저희가 진로를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은호 학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않고, 엉덩이 떼고 돌아다니니까 활동적이어서 좋고 기억도 잘 나요. 특히 친구들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권민혁 제 친구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 늦게 오시는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는 저녁에도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다 같이 신나는 자유학기제, 오래 하게 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현장 경기 안산 신길중

학생·학부모·교사 합심 미래로 通하는 시간을 만들다

신길중



신길중 학생들이 진로적성 선택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연계된 미용실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어서 오세요."

미용실에서 풋풋한 아이들이 직접 손님을 맞는다. 손님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자리로 안내한 뒤 헤어드라이기로 손님 머리를 야무지게 만진다. 미용선생님 곁에서 보조 역할을 해보기도 한다. 미용사를 꿈꾸는 열네 살 아이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학생들을 만난 곳은 학교가 아닌 미용실이었다. 직업체험이 끝나고 아이들과 동행했던 학부모가 소감을 묻자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어색해하던 아이가 "오길 잘했어요. 사실 이런 건 나랑 별개인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도 일원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꿈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것보다 현실에 부딪히며 원하는 직업을 몸소 체험하면서 성장하길 기대하죠."

경기 안산시 신길중 박헌순 교감의 말처럼 학생들은 학교와 연계된 지역 상점 및 기관들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을 하며 자율적으로 원하는 꿈을 찾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신길중은 2013년부터 시범학교로 선정돼 3년간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왔다. 시행 초기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1학년 2학기)만 자유학기제가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신길중은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 준비기,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 이후 2, 3학년에는 자유학기 연계기로 두고 자유학기제가 일회성 체험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계속 진로를 탐구하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에게 맞는 적성 찾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자유학기제 준비기인 1학년 1학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자유학기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자유학기제가 끝난 2학년부터는 교내 26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도록 지도한다.

교육과정은 오전에 진행하는 기본교과 교육(총 20시간)을 기본으로 월·화요일은 예체능 프로그램(각 2시간), 수요일은 교과 선택수업(3시간), 목요일 진로적성 선택수업(3시간), 금요일은 진로인성 프로그램(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교과 수업도 판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조별 활동 등 직접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길중 자유학기제 운영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학부모다. 신길중은 원활한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학부모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1학년 전체 인원 231명 중 55명의 학부모가 참여하고





1 학생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학부모 지원단과 논의하고 있다. 2 교과 선택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조별로 직접 건축물 모형을 조립하는 모습.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도 4차례 열었는데 약 200명의 학부모가 참석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특히 학부모 지원단은 지역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직접 발굴했다. 현재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 및 업체는 유치원, 병원, 파출소, 애견센터, 미용실 등 31곳에 이른다. 학생들은 4~10명이 한 팀을 이뤄 소규모로 각 기관이나 업체를 방문해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경험한다.

학부모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홍현미(41) 씨는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신길중 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의 기관, 상점들과 밀접하게 연계해 직업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길중의 학부모 지원단은 주변 중학교에서 찾아와 운영 비결을 배워갈 정도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한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주변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길중 학부모와 교사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입을 모았다.

홍 씨는 "예전에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누가 시키기 때문에 했다면, 이제 아이들에겐 목표가 생겼어요.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습 태도가 훨씬 좋아졌죠."

이어 그는 "학부모 모임에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자녀 교육에 올바른 잣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들 해요. 저도 학부모 지원단을 하면서 많이 변했고요. 오히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과정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길중 박헌순 교감은 "앞으로 자유학기제의 본질을 이해해 수업을 바꾸고 학교를 변화시켜서 학생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인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앞으로의 바람을 밝혔다. G

인터뷰 | 신길중 1학년 김정우

"자유롭게 실험하고 토론하며 공학도 꿈 키워요!"



어릴 때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설렜다는 김정우(14) 군. 꿈이 무엇이냐는 말에 항공기를 개발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과학 시간이다. 자유학기제에 접어들어서는 정우 군은 더욱 신이 났다. 판서식이 아닌 실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교과서를 보고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한 실험 주제를 두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실험을 잘해낼 수 있을까 친구들과 같이 고민해요. 과제가 주어지면 책이나 자료를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데, 재밌고 해내면 정말 뿌듯해요."

경기모바일과학고에서 하게 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김 군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앱 개발 같은 건 내가 할 수 없는, 동경의 대상으로만 여겼는데요. 실제로 해보니 개발 과정이 재밌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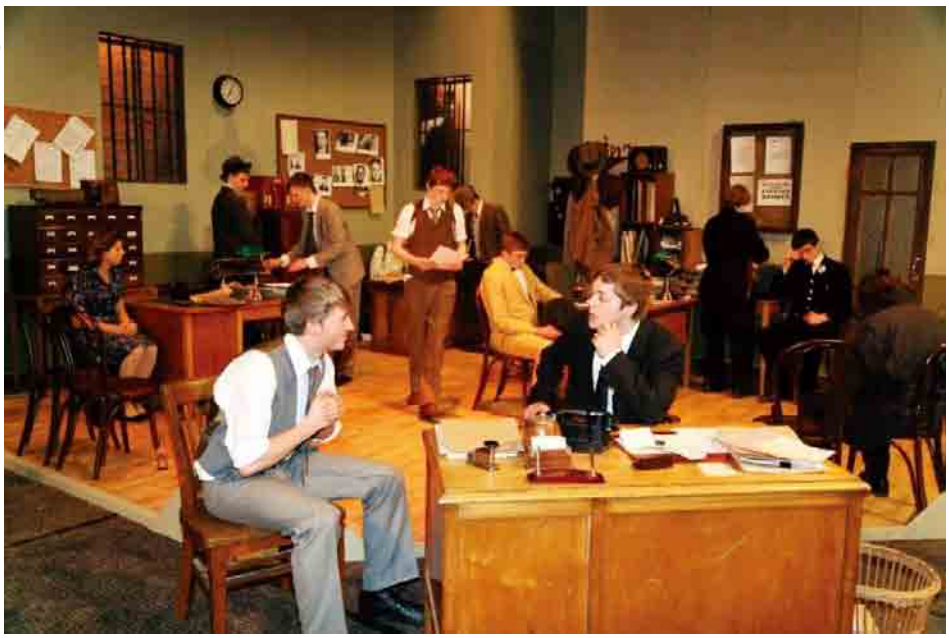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 조별 활동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 협력할 일이 많아져서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학기제는 성실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성실해진 것 같다"며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다"며 웃었다.

제도는 조금씩 달라도 청소년 꿈 키우기에는 한마음

해외 사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 양성이 목표

해외에서도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하는 제도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진로체험 교육)',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 등이 있다. 해외의 앞선 사례들을 교육부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동아DB



아일랜드는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1년간 전환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직업을 체험하면서 미래를 탐색할 기회를 준다. 샌드퍼드 파크 스쿨 학생들은 연극이나 영화 수업을 듣고 공연을 기획하기도 한다.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자유학기제의 본보기로 꼽히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1974년 리처드 버크 아일랜드 교육부 장관이 제안했다. 당시 학생들은 학업 능력 향상에만 집중해 지(知), 정(情), 의(意)를 두루 갖춘 전인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리처드 버크 장관은 '청소년들이 자아를 확립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15, 16세에 전인교육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교육부가 1986년 발표한 전환학년제 제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학년제의 목적은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자유학기제의 본보기

전환학년제는 2010년 현재 아일랜드에서 75% 이상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등교육과정 중에서 주니어 과정(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기 전 희망자에 한해 1년 동안 운영된다. 학생들은 학교가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적 활동'과 필수과목 계열, 선택과목 탐색 계열, 자유관심 계열(진로 상담, 창의적 사고법, 리더십, 연극 등), 체험 및 활동 계열(직업체험, 봉사활동, 생활체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업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이 다수 포함되므로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환학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험활동을 진행한 교육부, 학교, 각각의 기관 등에서 학생들의 성취감을 북돋워주기 위해 수료증을 발급한다. 학교 측에서 자유학기제 이수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지만 이는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아일



아일랜드 | 전환학년제

중등교육과정 중 주니어 과정(중3)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2)에 들어가기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

덴마크 | 에프트스콜레

공립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학교

스웨덴 | 진로체험 학습

기초학교 8, 9학년(중2, 3)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직업체험 기간. 1~2주간 학교 수업 대신 기업 등에서 현장 체험

일본 | 청소년 체험활동

진로교육 실천의 일환. 중학생이 5일 이상 직장을 체험하는 제도. 초등학교의 직장 견학, 고등학교의 인턴십과 연계

자료 : 교육부



랜드는 1994년부터 교사 연수를 진행해 교육 내용이 아니라 교수 방법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건 아니다. 전환학년제는 1993년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한 이후 많은 학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교장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가이드라인을 바꾼 뒤에는 교사의 핵심팀 구성과 팀 워크에 역점을 뒀다. 즉 교육부는 1993년 11월 전환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역 단위의 워크숍을 실시해 이때 만든 자료를 공유했다. 아울러 1995년에는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학교를 방문해 워크숍을 개최하며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줬다.

전문가들은 '각 학교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학교들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해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기간에 시험을 치르지 않아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전환학년제에 임할 수 있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다만 이 제도는 열정이 부족한 교사와 학생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지역 인프라에 따라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
중학생, 5일 이상 직장체험 진행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 정책은 진로교육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학생들에게 5일 이상의 직장체험을 하도록 한다. 2005년 시작해 2015년 현재 9582개(98%) 중학교가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바람직한 노동관 및 직업관을 육성하고, 배움과 일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기르고,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은 주변 직업 조사, 5일간의 직장체험, 부모 직장 참관, 특정 직장 견학, 상급학교 체험 입학 등으로 이뤄진다.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미야기현 게센누마시는 제도 덕에 시 전체의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환경 체험활동을 특화한 이곳은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됐다. 2005년 문부과학성이 커리어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도입된 도쿄의 '워크 워크 위크 도쿄(Work Work Week Tokyo)'는 3일 이상 직장체험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최근에는 교과와 연계된 체험활동도 강조되고 있다.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 에프터스콜레는 자유학교의 일종으로 공립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칠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학교다.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자발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음악, 미술, 체육 등 감성교육과 단체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직업체험보다 감성교육 등을 통한 진로 모색을 강조한다. 역할극,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은 기초학교 8, 9학년(한국 중학교 2, 3학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직업체험 기간을 말한다. 기초학교 8, 9학년생이 1~2주의 직업체험을 하고 상급학교에서 사회과학, 경영, 공업, 건설, 호텔 등 17개 교과 중 한 가지를 택해 15주 이상 현장교육을 받으며 학습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G

| 기고 |

아이들은 변해 있었다, 당당하게



동아DB

자유학기제는 내년에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관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5월 12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선포식에서 학생들이 바리스타와 제빵기술자 일일체험을 하고 있다

표혜영 | 인천 부평서여중 교감

운전이 미숙한 데다 길눈까지 어두워 운전대만 잡으면 진땀을 흘렸던 내게 내비게이션(길안내기)은 더없이 고마운 새로운 문명이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덕에 긴장과 두려움 없이 목적지에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자유학기제도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이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사의 한 획을 긋는 교육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년간의 교감 생활 동안 끊임없이 개선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이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강의 일변도의 수업에 엎드려 자는 것이 습관처럼 된 아이들, 온갖 교육적 처방에도 사라지지 않던 크고 작은 학교폭력으로 거칠어진 아이들로 진통을 겪던 교육 현장. 나는 이런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신선한 처치를 체험했다.

자유학기제는 이미 시범 운영을 넘어 전면 시행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그동안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고 헤쳐가게 하는 '자기 주도성'과,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성찰'에 방점을 두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구성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2013년에 시범 운영을 했으니 벌써 그 주인공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지난 3년 동안 학교를 옮겨가며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기획해왔다. 먼저 재직한 학교는 남학교로, 상당수의 아이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낮은 자존감과 누적된 학습 부진으로 무기력한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는 '공부와 체험이 조화된 종합 선물세트'였다.

자유학기를 마치고 일반학기로 복귀한 아이들은 변해 있었다. 교사들은 내심 자유학기 동안 오후 시간에 주로 체험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후 학기에는 장시간 교과활동을 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자기표현을 하는 아이들로 변해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귀한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 남았다.

무기력한 학생들에게 '공부와 체험이 조화된 종합 선물세트'

자유학기제는 그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학부모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교원은 '체험 인프라의 부족과 업무 과중'과 '일반학기로 복귀 시 지도 어려움'이 문제로 지목됐다.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3년이 지난 지금도 체험 인프라의 부족을 문제시하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자기표현을 하는 아이들로 변해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귀한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 남았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인프라의 부족'만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체험 인프라가 한정돼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첫해는 체험처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제공도 산발적이었다. 하지만 이듬해는 체험처 섭외가 더 수월해졌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아졌다. 부평서여중만 해도 2~3주 만에 31개의 체험처가 섭외됐다. 심지어 체험 프로그램 세팅이 완료된 후 체험처 여기저기에서 지원 의사를 보내와 일일이 거절해야 했을 정도다.

우리 학교가 있는 인천 지역만 해도 교육청과 산하 사업소를 주축으로 시청, 사회적 기업, 개인의 재능기부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는 체험 인프라 구축에 원천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교원의 업무 과중 문제도 해결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최적의 운영 시스템을 모색하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교사가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피로가 누적될 경우 당초 기대했던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양질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 업무 과중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학기 이후 일반학기로 복귀하면 학생, 교원 모두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물론 시험이라는 중압감이 없는 데다 오후의 활동이 모두 역동적인 자유학기에서 일반학기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우리 학교는 복귀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세워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모두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먼저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유지하도록 한다. 즉 학생이 주체가 돼 움직이고 탐구하는 수업을 자유학기에 이어 일반학기에도 실현하도록 한다.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만들려면 우선 교사 스스로가 변해서, 학생이 수시로 질문하고, 자유롭게 답하고,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가 조력자가 되는 수업일수록 섬세하고 치밀한 수업 설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교사의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이런 수업을 진행하려면 평가체계가 보완돼야 한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시험을 보지 않다가, 일반학기에 집필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에 따른 온도차로 학생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핵심 '성찰' 유지
학생활동 중심 수업 이어가

이와 함께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교육과정에 담아내려고 한다. 자유학기제에서 방점을 두는 것은 바로 '성찰'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꾸준히 생활과 삶 전반에 걸쳐 되물어야 할 성찰을 자유학기제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우리는 이것을 전 학년 '교과통합 진로교육 수업'으로 구현한다. 담당 교사는 단순히 단원 내용만 가르치던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즉 진로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내도록 소통하는 것인데 이때 교사는 수업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일러줄 수 있다. '삶의 이야기'가 있는 수업은 자유학기제가 강조하는 '성찰' 프로그램의 연장이다. 이것은 학원 강사와 학교 선생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전국의 다양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해 운영될 것이고, 교육의 형태와 도구 또한 진화해갈 전망이다. 이제 겨우 자유학기제를 3년간 운영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보건대, 다른 학교도 비슷한 보폭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자유학기제는 요란하지 않되 강하면서도 놀라운 혁명이다. G

미리 하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 세우기

공제액·세액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신고서는 파일로 제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고	간편하게 제출
• (10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제공으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이듬해 1월) 연말정산 세액 자동 계산 + 맞벌이 부부 절세 가이드	• 신고서 수기 작성 → 자동 작성	• 신고서·증명서류 문서로 제출 → 파일로 온라인 제출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11월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돼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김모 씨는 곧바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로그인을 했다. 화면에 뜨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을 클릭하고 들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봤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정산 추세와 항목별 절세 팁을 볼 수도 있다고 해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해 계산하기를 눌렀다.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130만 원 가량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갔다. 그랬더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였다. 끝으로 절세팁을 알아봤다.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나왔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프도 볼 수 있었다. 항목별 팁을 찾아보니, 앞으로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면 공제한도인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다.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안내도 나와 있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생겼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를 시행해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 세액까지 알려준다. 또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빨리 끝나는 장점도 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한 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제 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3년간의 공제 내역을 공제 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줘 그동안 부족했던 공제 항목을 쉽게 찾아서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도 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것인지에 따른 환급 세액을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비교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11월 3일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에 관해 발표했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정부3.0의 일환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추진위원회는 "2016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에 국민이 더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화면 캡처.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연말 정산 미리 보기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매년 10월(올해만 11월 4일 제공)에 당해 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예상해 본 결과다. 또한 이 같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해 표와 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제항목별 절세방법도 알려준다.

이듬해 1월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제공되고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작성되는 서비스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할 때 편의를 위해서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서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 제공되며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

또한 경정청구서도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경정청구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해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것인데, 이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해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경정청구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의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이 같은 공제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간편 제출 서비스 :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간편 제출 서비스'는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 협력비용이 매년 2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G

밀라노엑스포 폐막… 한국관 230만 관람객 동원

유럽에 심은 한식의 매력 (韓食)



박영희 한국관 부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월 30일 밀라노엑스포 국가관 평가에서 전시 부문 은상을 받은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관은 미래세대에게 큰 영향을 준 국가관에 수여하는 '클래스 엑스포 파빌리온 헤리티지 어워즈' 특별상을 동시 수상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5월 1일(현지시간) 개막한 2015 밀라노엑스포의 한국관이 유럽 내 한국 관련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다인 230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10월 31일 184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종전 최다 기록인 2000 하노버엑스포의 222만여 명을 앞지르는 수치다. 하루 평균 관람객은 1만2000여 명으로, 전체 엑스포 방문객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한국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2015 밀라노엑스포 국가관 평가에서 전시 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더불어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관에 주는 상인 '클래스 엑스포 파빌리온 헤리티지 어워즈(2015 Class EXPO Pavilion Heritage Awards)' 특별상을 동시 수상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대안으로서 한식의 가능성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미래 먹거리 대안으로 떠오른 '한식'

인류 식량 문제에 깊은 통찰 제시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은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 음식이 곧 생명이다(Hansik, Food for the Future : You Are What You Eat)'를 주제로 한식을 미래 먹거리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관의 건축은 한식의 지혜를 담은 그릇인 '달항아리'를 본떴고, 전시는 한식에 담긴 조화, 발효, 저장의 세 가지 지혜를 첨단 미디어아트를 통해 표현했다. 한식 레스토랑에서는 조화, 치유, 장수를 주제로 개발된 메뉴를 제공했다.

한국관 전시장에서 관람객에게 가장 먼저 선보인 것은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지구촌 먹거리 위기를 표현한 작품이다. 방문객은 이 작품을 보면서 지구 한쪽에서는 과식과 과잉생산의 문제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아와 식량 고갈의 문제가 있음을 떠올렸다.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한식이 맛, 재료,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조화를 특징으로 하며 자연과 시간의 도움으로 음식의 맛과 영양을 극대화하는 발효와 저장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대형 옹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360도 회전 로봇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는 5월 11일 "'한국관은 올바르고 적당하게 먹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







1 옹기 안에서 발효되는 과정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2 한식을 360도 회전하는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으로 보여주는 로봇 퍼포먼스. 3 조덕현 한국관 관장이 한국관 한식 레스토랑에서 방문객들에게 한식을 소개하고 있다.

고, 가슴에 와 닿는 미디어아트로 답한다"라고 보도했다.

한식 레스토랑에서는 전시 주제 의식을 담아 조화(Harmony), 치유(Healing), 장수(Health)의 3에이치(H) 메뉴를 선보였다. 각 테마 메뉴는 김치, 장, 비빔밥 등 우리의 주요 식문화를 반영했다. 특히 한상차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친환경적인 건강 밥상 '한 접시(One-Plate)'는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는 '엑스포 장내 3대 레스토랑'으로 한식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한국관 레스토랑은 맛보기 위해 30분간 줄 설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극찬했다(5월 14일자). 6개월간 한식 레스토랑에는 하루 평균 1000명, 총 19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 부문 은상 등 2개 상 동시 수상
관람객 77% "한국 방문하겠다"

그 결과 한국관은 폐막을 하루 앞둔 10월 30일 '2015 밀라노엑스포 국가관 평가'에서 전시 부문 은상, '2015 클래스 엑스포 파빌리온 헤리티지 어워즈'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이번 동시 수상은 지난 8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불리는 '2015 레드닷 디자인상(2015 Red Dot Design Award)'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본상 수상에 이은 쾌거다.

이로써 한국관은 전시 콘텐츠, 미래세대 기여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실공히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덕현 관장은 "한국관의 레드닷 디자인상에 이은 국제박람회기구 전시상과 클래스 헤리티지 특별상 동시 수상은 한국관이 전시의 예술성은 물론, 미래 먹거리의 대안으로서 한식의 가능성을 현지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엑스포가 유럽 지역 내에서 한식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으로 유럽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관 관람객 설문 조사 결과 그동안 한식을 경험해본 방문객은 35%에 그쳤으나, 한국관 방문 이후 한식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89%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 잘 안다는 비율도 20%에 그쳤지만, 한국관 관람 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비율은 77%나 됐다.

조덕현 관장은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운영으로 유럽에서 한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한식을 문화와 관광에 융·복합시키고, 이야기가 있는 한식 문화를 총체적으로 알려 한식이 세계인의 머리와 가슴에 깊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식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한식 진흥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으로 조성된 협력 기조와 한식 한류 확산 분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G



다문화가정에는 향수를, 내국인에겐 아세안 문화체험을

산림청, 경기 양주시에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개장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산림청

"엄마 고향은 어디야? 엄마 집 가보고 싶어. 할머니도 보고 싶고."

"엄마 집은 너무 멀어… 미얀마라는 곳이야. 비행기를 타도 일곱 시간이나 걸리니까 우리 아들 나중에 크면 가보자."

떳산디(26) 씨는 아들이 엄마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말에 잠시 가슴이 뭉클해졌다. 갑자기 그리운 고향 생각을 하니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이 살던 고향을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함께 밀려왔다.

다행스럽게도 떳산디 씨가 잠시나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국내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향수를 달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아세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11월 1일 경기 양주시에서 문을 연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이 바로 그곳.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전통가옥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산림청은 10월 29일 아세안 10개국 대사와 신원섭 산림청장, 여성가족부·외교부 관계자, 다문화가정,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아세안자연휴양림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모국 문화가 깃든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2009년 한국·아세안 산림고위급회의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아세안 10개 국가의 우호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띠기도 한다.

산림청은 아세안자연휴양림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의 구실을 하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AFoCO) 설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산림 부문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협력해 사막화 등을 방지함으로써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아세안 10개국 우호관계 상징
송추IC에서 20분 거리 접근성 좋아

아세안자연휴양림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의 전통가옥을 재현한 숲 속의 집을 마련해 아세안의 다양한 주거문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한옥 양식의 방문자 안내센터,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휴양림에 들어서면 한국의 전통 주거 양식인 한옥 형태의 방문자 안내센터와 마주하게 되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싱가포르 가옥부터 각 나라 고유의 모습을 띠는 가옥들이 줄지어 있어 자연과 아세안 문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아세안자연휴양림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나들목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남아 출신 근로자와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아세안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는



1


2

(왼쪽) 10월 29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 열린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개장식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이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 개장식에서 김용하 산림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아세안 회원국 대사, 지역주민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 세워진 미얀마 전통가옥.

내국인 휴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양림 주변에는 도봉산, 불곡산, 장흥자생수목원, 송추계곡, 청암민속박물관 등 관광자원도 풍부해 자연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아세안자연휴양림은 해외 체험형 자연휴양림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우리나라 민속놀이 사방치기와 비슷한 싱가포르의 오랙말놀이, 필리핀식 공기놀이인 잭스톤, 2인3각과 비슷한 인도네시아의 발랍바키약 등의 아세안 놀이문화를 숲 체험과 연계해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내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300명 입장 가능
매달 1~14일은 다문화가정, 15일부터 일반 예약

이 밖에도 아세안 각 나라의 국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속 결혼식, 다문화 음악회 등을 열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휴양림은 하루 최대 300명이 입장할 수 있고 객실 수용 인원은 119명으로, 이용 예약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할 수 있다. 휴양림관리소는 시범 운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달 1~14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예약을 받고, 15일부터 남은 객실에 대한 일반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체험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봉산과 송추계곡 등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 휴양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

아세안 나라별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놀이명	놀이 내용	놀이 국가
총칵 (Congkak)	고대 여인들의 수학 게임으로 땅속에 파놓은 구멍과 타마린드 씨앗을 이용한 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태국 북방
잭스톤	필리핀식 공기놀이	필리핀
세팍 라가 (Sepak Raga)	대나무를 엮어 만든 공을 손과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이용해 차는 구기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세팍 망기스 (Sepak Manggis)	사바주(州)의 바자우족과 이라눈족 남자들이 하는 독특한 야외놀이	말레이시아
쭈온쭈온	대나무로 만든 잠자리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놀이	베트남
코코넛 밟기	코코넛 열매를 활용한 전통놀이	베트남, 싱가포르
뇬막헌	마주 보고 서서 공을 던지고 받는 전통놀이	라오스
탈출게임	나뭇조각을 움직여 가장 큰 나뭇조각을 게임판 아래쪽으로 탈출시키는 두뇌 개발 게임	태국
발랍 바키약 (Balap Bakiak)	국내 2인3각 놀이와 유사한 게임	인도네시아
스벡 톰 (Sbek Thom)	가죽으로 만든 2m 높이의 꼭두각시 그림자극	캄보디아
티니클링 (Tinikling)	두 개의 긴 대나무 장대를 이용한 필리핀 전통춤	필리핀
오랙말놀이	한국의 사방치기와 유사한 놀이	싱가포르

김종 문체부 제2차관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으로 선출

“운동선수 도핑 근절 한국이 더 큰 역할 펼칠 것”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부의장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10월 29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5차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부의장으로 뽑혔다.

도핑은 운동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 좋은 성적을 올릴 목적으로 선수가 심장흥분제, 근육증강제 등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경주마의 체력 증강을 위해 투여한 약물인 ‘도프(Dope)’에서 유래됐다. 도핑은 약물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를 만큼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경기의 공정성을 깨뜨려 결국 본연의 스포츠 정신을 잃게 만든다. 하지만 100분의 1초라도 기록을 앞당기고 싶은 운동선수들은 약물의 검은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은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협약으로 2005년 10월 19일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유네스코 회원국 195개국 중 183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07년 2월 국회에서 가입을 비준했다.

이번 당사국회의에서는 의장 1명과 5개 지역 그룹별 부의장 1명씩이 선출돼 총 6명이 의장단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현 의장인 살레 콘바즈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제4차 회의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김 차관은 일본 정부 대표가 부의장으로 추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44개국의 지지를 받아 최종 선출됐다. 한국이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의장단에 진출하기는 처음이다.

김 차관은 제5차 회의부터 제6차 회의 개최 전인 2017년 10월까지 2년간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183개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을 지켜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핑 방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대표가 부의장에 선출됨에 따라 세계도핑방지 운동 확산에 한국의 구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앞으로 한국은 국제 스포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해갈 것”이라며 “특히 도핑 방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핑 방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G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 입학 원아 모집 과열 완화



동아DB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유치원의 원아 모집 과열경쟁이 완화될 전망이다(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음).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A 유치원에서는 원아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지원자가 500명이 넘게 몰렸다. 결국 경쟁이 치열해 추첨으로 아이들을 뽑아야 했다. 드디어 원아 모집 추첨 날! 학부모들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긴장한 눈빛이 역력했다. 유치원 측은 커다란 상자에 '당첨'과 '탈락'을 표시한 공을 넣어놓고 "정전기 때문에 탁구공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 외투를 벗어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학부모가 추첨함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다. 곧이어 '당첨'을 의미하는 주황색 탁구공을 집어들자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해당 학부모는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듯 기뻐하며 주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이어 당첨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자 한쪽에서는 아쉬움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당첨자가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추첨을 하러 왔다는 학부모 김모 씨는 "오늘 이 유치원에서 탈락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며 "다행히 당첨이 됐지만 유치원 입학이 입시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갔다.

앞으로는 학부모들의 속을 끓여왔던 유치원 원아 모집 과열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월 27일 유치원 원아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장의 원아 모집에 대한 권한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아를 선발할 때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별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시·도에서 따로 원아 모집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시·도에서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아 모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등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과 선발 과정이 더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 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돼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먹는 '꽃', 산업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관상용 야생화가 미래 먹거리로 탈바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글·사진 이동혁 | 야생화 칼럼니스트

'먹방(먹는 방송)이 대세'가 된 지도 오래됐다. 먹방의 인기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욕구가 인간에게 본능처럼 자리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사람들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 기존의 음식을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먹고 즐길 수 있게 된 그 무언가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꽃이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자연에서 먹거리를 찾았다.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이름에는 '취'자를 붙여 불렀다. 취나물이라 불리며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표적인 식물은 참취다. 산야에서 저절로 자라지만 이를 재배하는 농가도 많다. 잘 알려진 쌈 재료로는 곰취가 있다. 향취가 좋아서 쌈 재료로 이용하고 장아찌로 담가 먹기도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개미취 역시 특유의 쌉싸래한 맛이 좋아서 고기와 잘 어울린다. 이런 야생화들은 봄에는 쌈으로 먹고 가을에는 꽃으로 감상하기 좋아 개발 가능성이 크다.

곤드레나물에 이은 쑥부쟁이
아삭한 식감에 체중 감소 효과까지

야생화 가운데 가장 친숙한 식재료는 곤드레나물이라 불리는 고려엉겅퀴다. 강원도의 어지간한 식당에서는 곤드레나물밥을 팔 정도로 강원도는 곤드레나물의 주산지다. 유명해진 곤드레나물은 산야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농가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식물을 지역민이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상업화한 전략이 오늘의 곤드레나물을 있게 했다.

최근 곤드레나물 못지않게 뜨는 야생화, 쑥부쟁이는 너무나 흔한 꽃이라 그간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쑥부쟁이가 특유의 산뜻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지녔을 뿐 아니라 체중 감소와 나트륨 배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생나물뿐 아니라 말린 나물, 자반, 장아찌, 전, 국수 등의 형태로 사랑받는 쑥부쟁이는 2013년부터 전남 구례군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하고 있다. '2015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이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자연과 힐링을 찾아 추억 속으로'라는 주제로 쑥부쟁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가 열리기도 했다. 이곳에서 쑥부쟁이를 이용한 떡, 머핀, 쿠키, 떡, 차 등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선보였는데, 맛이 좋았는지 순식간에 매진됐다고 한다. 이런 선전에 힘입어 쑥부쟁이를 연중 재배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야생화 개발은 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섬 주민들은 자신들이 먹던 각종 산나물을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실례로 울릉도 주민들은 춘궁기에 살아남기 위해 먹던 산나물을 특산품으로 판매하면서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울릉산마늘은 명이나물로, 눈개승마는 삼나물로, 섬쑥부쟁이는 부지깽이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판매되는데, 기후변화로 오징어마저 서해안으로 몰린다는 요즘







(왼쪽 지면) 섬쑥부쟁이는 2013년부터 전남 구례군이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하고 있으며 생나물뿐 아니라 나물, 자반, 장아찌, 전, 국수 등의 형태로 사랑받는다. 1 섬바디. 울릉도 주민들은 명이나물에 이어 섬바디도 나물로 개발해 판매하며 야생화 먹거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2 참나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합과 식물. 충남농업기술원 등이 5년여간 연구해 참나리를 활용해 쿠키, 발효주, 면 종류 등의 참살이 식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3 곤드레나물로 불리는 고려엉겅퀴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식물이다. 4 전남 함평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향대전 2015'에 다양한 꽃차가 전시됐다.

이런 야생화들은 오징어와 호박엿을 대체할 소득원 구실을 톡톡히 한다. 울릉도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섬바디와 물엉겅퀴도 나물로 개발하고, 섬더덕은 젤리로도 만들어 판매한다. 울릉도에서는 이렇듯 희소성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야생화 먹거리 산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야생화의 식품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합과 식물, 참나리는 우리 산야에 흔히 자라고 크기가 큰 데다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심는 꽃이다. 이 참나리를 이용해 충남농업기술원 백합시험장과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이 공동으로 5년여의 연구 끝에 쿠키, 발효주, 면 종류 등의 참살이 식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참나리는 기본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포함해 10여 종의 지방산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식용 가치가 큰 야생화인데, 이런 참나리를 쿠키로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것이 놀랍고 신선하다.

다양한 야생화 꽃차로 개발
한국 대표 산업으로 전망 밝아

야생화의 잎이 아닌 꽃을 이용한 대표적인 산업은 꽃차 분야다. 이전까지는 기껏해야 꽃을 비빔밥의 재료로 넣어 먹거나 화전으로 만들어 먹었다. 이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입맛을 돋워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향기로운 꽃차가 하나둘 개발되기 시작했다.

야생화를 이용한 꽃차는 수입을 대체한다는 점뿐 아니라 우리 정서에 맞는 꽃차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간 외국에서 수입한 독한 향기의 허브차를 접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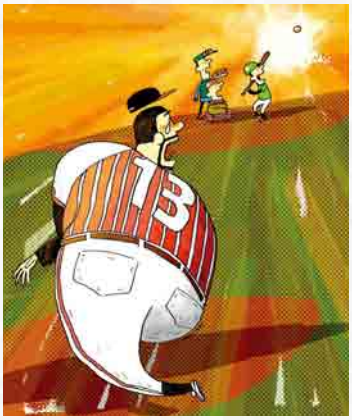
몇 년 전만 해도 꽃차라고 하면 연꽃차 정도가 알려졌다. 단순히 연꽃을 따 와서 즉석에서 주전자의 끓는 물에 넣어 몇십 분 우려내 마시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예를 들어 독성이 있는 구절초는 녹차처럼 가볍게 쪄서 말린 뒤 솥에 넣고 은근한 불에 덖어서 내놓는다. 카페인 성분이 많은 목련은 꼭 발효시킨 뒤 차로 만든다. 그 밖에도 다양한 야생화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꽃차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전남 함평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향대전 2015'에서는 다양한 꽃차가 전시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맨드라미, 천일홍, 도라지, 석류, 목련, 매난국죽, 팬지, 녹차, 동백, 구절초, 홍화, 해당화, 도화, 장미 등등 이곳에서 전시하는 꽃차만 해도 수십 종이 넘는다. 꽃차 산업은 다양한 꽃으로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 그 전망이 매우 밝다.

장식용으로나 썼던 꽃을 먹거리로 활용하는 일은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살기 위해 먹던 음식을 새로운 먹거리로 개발하면서 부가적인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실로 야생화를 이용한 먹거리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꽃이다. 우리만의 식물로 우리만의 먹거리를 만들어 세계인이 한국을 찾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현하는 일이다. G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2년 차 징크스’는 ‘평균 회귀’ 흔한 현상



스포츠계에선 신인으로 뛰어난 성적을 올린 선수들이 2년 차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징크스가 흔하다.

김창엽
자유기고가

“당신 닮아서 우리 영희 학업 성적이 안 오르나봐요(웃음).”, “글쎄요, 고모나 삼촌들 보면 당신 말고는 당신네 식구들도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아들을 둔 K씨 부부는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아볼 즈음이면 은근히 날 선 말들을 주고받는다.

이 부부는 세칭 명문대를 나왔다. 한데 고교생인 두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나온 정도의 대학 진학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부부는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걸 두고 서로 상대 집안 탓을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이다. 들판에서 거둬들인 곡물만이 수확은 아니다.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졸업반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해온 결실을 거두는 시기다. 어디 공부뿐이랴, 프로야구 같은 운동선수들도 한 해를 결산하는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속담에 ‘형만 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지만, 서열의 잣대를 들이대면 자식이 부모보다 못한 예를 찾기 어렵지 않다. 아니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다소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노벨상 수상이 거론될 정도로 뛰어난 두 남녀 과학자가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고 치자. 이 아이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인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통계는 그 반대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한다. 이른바 ‘평균 회귀’ 현상이 그것이다. 지능이나 신체적 특징 같은 것이 대를 이어 우수하게 전해지기보다는 평균값을 향해 퇴보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대를 이어서가 아니라 개개인으로 좁혀봐도 비슷한 평균 회귀 현상들이 나타난다. 스포츠계에 흔한 이른바 ‘2년 차 징크스’가 단적인 예다. 축구나 야구에서 신인으로 뛰어난 성적을 올린 선수들은 데뷔 이듬해에는 성적이 첫해만 못한 경우가 왕왕 있다.

2년 차 부진을 흔히 징크스라고 말하지만, 첫해 성적이 예외적으로 뛰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떤 운동선수가 개인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면, 이듬해에는 그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보다 아무래도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은 게 당연하다.

2년 차 징크스는 자연계에 흔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심리적 요인도 있다. 첫해 좋은 성적을 올리면 아무래도 마음이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창업에 성공해 큰 기업을 이룬 부모 밑에 경영인으로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의 예가 흔치 않은 건, 평균 회귀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이다. 창업자와 달리 2세들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헝그리(hungry : 갈망하는) 정신’이 부족해 부모만큼 기업 운영을 못할 수도 있다.

2년 차 운동선수든 자녀든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 부모나 감독 혹은 구단주 처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확의 계절, 성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느긋하게 섭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게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길이지 않을까.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손에 땀을 쥐는 흥미진진 스릴러



우리가 묻어버린 것들
앨런 에스킨스 지음 | 강동혁 옮김 | 들녘 | 424쪽 | 1만4000원

김성희
북칼럼니스트

추리소설은 진화한다. 에드거 앨런 포가 〈모르그가의 살인〉으로 추리소설을 선보인 이래 한동안은 독자의 허를 찌르는 두뇌 싸움이 추리소설의 본령이었다. 코넌 도일의 셜록 홈스며 애거서 크리스티의 푸아로 등 명탐정들이 빛나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코믹물(〈아기는 프로페셔널〉)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추리물(〈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도 있고 심지어 눈물을 자아내는 범죄소설(〈악인〉)도 있다. 어두운 시대상을 그린 하드보일드 소설, 뛰어난 무력을 갖춘 스릴러에서 사회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회파 추리소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설이 독자의 손길을 기다린다. 그중에는 당연히 주인공도 다양해져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전형적인 탐정이나 형사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기자 등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며 때로는 악인이 주역으로 나오기도 한다.

주인공이 누구든, 주제가 무엇이든 추리소설의 미덕은 재미다. 읽는 내내 궁금증을 자아내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이뤄지면서 '악인은 지옥으로'라는 구조가 독자를 끌어들인다. 한번 잡으면 쉽게 놓을 수 없기에 책 읽는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 자주 권해지는 장르다.

이야기는 조 탤버트라는 미네소타대학 학생이 힐뷰 매너란 요양원을 방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탤버트는 대학 영어 수업 과제로 낯선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 요양원을 찾은 것. 거기서 칼 아이버슨이라는,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노인을 소개받는다. 한데 아이버슨은 30년 전 열네 살짜리 여자애를 강간하고 살해한 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 죽음을 앞두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처지다. '남은 삶을 시간 단위로 셀 수 있는' 아이버슨은 처음엔 탤버트와의 대화를 거부하다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임종 시 진술'을 시작한다. 일이 커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버슨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 기록을 조사하면서 탤버트는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야기는 추리소설치고는 잔잔하다. 막판 반전은 있지만 교묘한 트릭도 없고, 피 튀기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 역시 완력이 강하거나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다. 영웅이 아닌 보통사람이란 이야기다. 한데 인간적 면모와 문학적 향취가 소설의 흡인력을 보장한다.

소설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탤버트와 아이버슨 외에 탤버트의 동생 제러미, 옆방의 라일라 내시, 아이버슨의 전우 버질 등이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들 모두는 약점과 상처를 가졌다.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자폐증이 있는 동생을 피해 대학으로 '탈출'한 탤버트, 문란한 과거를 가진 내시, 베트남전쟁의 기억에 시달리는 아이버슨과 버질의 이야기가 한 편의 잘 짜인 태피스트리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언론정보학을 전공한 뒤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계에서 일했다는 작가의 데뷔작인데, 추리소설의 미덕과 품격을 두루 갖춘 작품이다. 이 가을, 진지한 책을 멀리하는 이들도 독서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 만큼.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늦가을과 가수 김정호

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

내 친구는 유달리 김정호 노래를 좋아했다. "고요한 밤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 길 잃은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 어니언스가 불러 유명해진 '작은 새(1974)', 김정호가 만든 노래다. 그 노래가 끝날 때쯤 술집은 한순간 적요해지고 잠시 뒤 요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속에는 비운의 가수 김정호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김.정.호. 대한민국의 중년치고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어려웠던 시절 그가 눈을 감고 마이크를 꽉 잡은 채 비감 어린 표정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시간이 멎는 듯했다. 노래는 신산했던 그의 삶이 그렇듯이 대부분 어둡고 음울한 색깔을 담고 있다.

김정호는 1952년에 태어나 1985년 서른셋, 가수로서는 절정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는 애잔한 노랫말과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70년대를 풍미한 포크계의 '레전드(전설적인 인물)'다. 1973년 '이름 모를 소녀'를 발표하면서 일약 가요계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고 요절할 때까지 '작은 새', '저 별과 달을', '하얀 나비', '날이 갈수록', '편지', '빗속을 둘이서' 등 지금의 중년들이 열광했던 불멸의 곡들을 남겼다.

신세대들은 김정호 노래를 영화 OST를 통해 접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가 주인공이다. 개발시대 한국인들의 곤고한 모습이 시대적 배경이다. 중동에 간 남편을 여의고 홀로 갓난아이를 키우며 갖은 고생을 하던 풍경들과 함께 주인공 심은경이 직접 '하얀 나비'를 부르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언제 적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나왔다"는 신세대들의 글이 눈에 띈다.

최근 들어 김정호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찮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전남 담양군과 광주시 간의 경쟁이 주목된다. 담양은 김정호의 외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담양 사람들은 담양의 명물 메타세쿼이아 길에 노래비를 세우고 이를 계기로 김정호를 숫제 담양의 인물로 굳힐 자세다.

이에 광주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정호가 광주에서 태어났고 수창초교를 다녀 누가 뭐래도 광주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정호의 음악적 자산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광주 도심 재생에도 활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가수 김광석이 태어난 대구 방천시장 부근의 둑길 350m를 2011년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로 조성해 엄청나게 성공한 것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를 찾는 관광객 절반 이상이 '김광석 거리'를 방문했다고 한다.

두 지자체 간의 경쟁은 김정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뉴스가 된다. 모두가 저마다 가슴속에 한 마리 하얀 나비를 간직한 채 살아온 것이 지금의 중년 세대다. 온갖 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가 되면 다시 피니 서러워 말아요'라는 노랫말을 되새기며 험난했던 시절을 견뎌냈다. 그러나 살아생전 그 어려운 시기에 일체의 도움도 주지 않았던 지자체들이 이제 와서 저마다 김정호를 이용하려는 세태가 야속하다.

김정호의 노래는 굳이 계절로 표현하자면 늦가을이다. 그의 노래들은 기성세대에게 10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기제가 된다. 험난했던 시대, 하늘이 높아만 가던 늦가을,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학교 방송반에서 틀어주던 '날이 갈수록'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찔끔 나곤 했다. 2015년 가을, 담양군과 광주시 간의 경쟁으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를 떠올리게 된다. 가을이 깊어간다. 그의 노래에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G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활짝 핀 우리꽃 야생화 보러 가요

야생화 100대 명소



서울 (2지역)	**강원** (19지역)	**대구** (2지역)	**충남** (9지역)
경기 (15지역)	**경남** (7지역)	**전남** (11지역)	**충북** (4지역)
인천 (3지역)	**경북** (9지역)	**전북** (11지역)	**부산** (4지역)
			제주 (4지역)

문화융성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스포츠, 공연, 미술관, 박물관, 고궁 무료·할인 관람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문화가 있는 날 을 검색하세요!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안내 : 02-760-4790~1